【논 문】

노동자에서 '소수민족 중간상인'으로?
—재현과 사실 사이—

이 동 진*

차 례

Ⅰ. 서론
Ⅱ. 고미카와 준페이와 소설 <인간의 조건>
Ⅲ. <인간의 조건>에 나타나는 재만 조선인 광산 노동자의 '조장(把頭)'
Ⅳ. <인간의 조건>에 나타나는 재만 조선인 '불법적 중간상인'
Ⅴ. 통계 자료에 나타나는 재만 조선인 광산 노동자
Ⅵ. 구술 자료에 나타나는 재만 조선인 '중간 상인'과 광산 노동자
Ⅶ. 결론

국문초록

고미카와 준페이가 쓴 대하소설 <인간의 조건> 1부와 2부는 1943년 소화(昭和)제강소의 궁장령(弓長嶺) 철광을 무대로 하여 일본인 관리자인 주인공과 그의 관리를 받는 중국인 '특수 노동자(特種工人)'가 주요 인물로 등장하고, 조선인 광산노동자조의 조장과 '악덕' 중간 상인이 부차적인 인물로 등장한다. 이 글에서는 소설에서 재현되는 조선인 조장과 악덕 중간상인이 '소수민족 중간상인'에 해당되는가에 대해서 소설의 논리 속에서 살펴보고, 다시 만주노공협회(滿洲勞工協會) 등의 통계 자료와 '만인갱(萬人坑)'에 관한 구술 자료 등과 대조해 보았다. 이 자료들은 문학적 재현과 비교해서 사실적 자료라고는 해도 조선인의 면모를 살펴보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소설 <인간의 조건>은 저자의 경험을 반영하는 자전적 소설로서 재현과 사실의 사이에 있는 텍스트이며, 문학적 재현성으로서의 맥락성과 직접적인 경험이라는 사실성을 동시에 증언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고 있었다.

* 경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www.kci.go.kr

주제어: 재만 조선인 광산 노동자, 소수민족 중간상인, 소설 <인간의 조건>, 통계 자료와 구술 자료, 재현과 사실

Ⅰ. 서론

만주를 무대로 하는 대표적인 노동소설로서 고미카와 준페이(五味川純平, 본명은 栗田武, 1916-1995)의 대하소설 <인간의 조건> 1부와 2부가 있다.[1] 소설 <인간의 조건> 1부와 2부는 요녕성 안산(鞍山)에 있는 소화제강소(昭和製鋼所, 1916년에 중국에서 최초로 설립된 안산제철소가 전신이었음) 궁장령(弓長嶺) 철광을 무대로,[2] 주인공인 일본인 관리자 가지(梶)와 중국인 '특수 노동자(特種工人, 소설에서는 '특수 광부'로 표현되었음. 이하 특수 광부로 표기함)'에 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룬다. 소설에는 조선인 노동자와 그 주변 인물들도 등장한다.[3]

재만 조선인 광산 노동자를 소재로 하는 단편소설로는 1928년 <조선지광(朝鮮之光)> 1월호에 발표한 한설야의 <합숙소의 밤>이 있다.[4] 이 소설은 1926년 무순(撫順)탄광에서의 조선인 광산 노동자에 관한 이야기다.[5] 무순탄광과 소화제강소는 각각 남만주철도주식회사(이하 滿鐵)와 만주중공업주식회사(이하 滿業)산하의 만주에서 가장 큰 중공업 기업들로,[6] 이들 기업으로 인해 무순과 안산은 만주의 대표적인

1) 고미카와 준페이, 김대환 옮김, 2013a,『인간의 조건 1: 두 갈래의 미래』, 잇북; 고미카와 준페이, 김대환 옮김, 2013b,『인간의 조건 2: 강요된 선택』, 잇북.

2) 소설에서는 '라오후닝 채광소'로 나온다. 소화제강소의 철광으로는 안산 철광과 궁장령 철광이 있었다. 안산 철광은 안산 공장 주위 16킬로미터 이내의 철광을 말하며, 궁장령 철광은 안산 공장에서 56킬로미터 떨어진 곳으로 황니강(黃泥崗), 광석령(鑛石嶺), 소가보자(蘇家堡子) 등의 채광소가 있었다. 昭和製鋼所, 1939,「株式會社昭和製鋼所現況」,『日本鑛業會誌』55卷 654號. 나중에 보게 될 궁장령 철광에 관한 구술 자료를 보면 '특수 노동자(구술 자료에서는 '보도 노동자')'가 관련되는 채광소로서는 '소가보자 채광소'였을 가능성이 높았다. 이 글에서는 소설의 무대인 라오후닝 채광소를 궁장령 철광으로 서술한다. 궁장령 철광은 안산 철광, 본계호(本溪湖) 철광과 함께 만주의 3대 철광으로 불렸다.

3) 3부와 4부는 주인공이 관동군에 입대하여 겪는 이야기이고, 5부와 6부는 주인공의 부대가 소련군의 참전으로 거의 전멸한 후에 가까스로 생존한 주인공이 귀향하기까지의 이야기였다.

4) <합숙소의 밤>에 관해서는 유수정, 2009,「두 개의 '합숙소의 밤'과 만주」,『만주연구』9; 김창호, 2016,「푸순 탄광과 한중 소설」,『만주연구』22를 참고하라.

5) 1909년에 체결된 '간도협약'으로 일본이 무순탄광 채굴권을 획득하였다. 원래 무순탄광의 채굴권은 러시아가 동청철도 부설권을 획득한 후에 가져간 것이었다.

6) 소화제강소는 1933년 6월에 만철이 전액 출자한 만철 직계회사로 창립되었으며, 만주의 가장 큰 철광이었던 궁장령철광을 임차했다. 1938년 3월에 만철이 소화제강소 주식의 55퍼센트를 만주중공업개발주식회사(滿業, 1937년 12월에 만주국의 중공업을 독점 지배하는 기업으로 창립되었음)에 양도하였다. 소화

중공업 도시로 발전하였다[무순은 석탄도시(煤都), 안산은 제철도시(鐵都)로 각각 지칭되었다]. 그런데 두 소설에 등장하는 조선인 광산 노동자의 처지가 다르게 기술된 점이 주목된다.

<합숙소의 밤>에서는 조선인 노동자가 중국인 노동자보다 더 낮은 최하층 노동자로 기술된 반면에, <인간의 조건>에서는 조선인의 일부가 일본인 직원과 결탁하는 '소수민족 중간상인(minority middleman)'으로, 그것도 '불법적인' 소수민족 중간상인으로 기술되어 있다.[7] '소수민족 중간상인'이라는 개념은 특정 소수민족 이민자가 수용 국가에서 지배 민족과 피지배 민족 사이에서, 지배 민족의 하위 파트너로서 지배 민족의 피지배 민족에 대한 지배를 중개하는 역할을 수행하거나 지배 민족이 관여하지 않는 부분을 담당하는 것을 지칭한다. 미국에서 한인들이 흑인들을 대상으로 자영업을 하는 것이 그러한 사례의 하나이다.[8]

'소수민족 중간상인'은 다민족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만주국이라는 다민족 사회에서 조선인이 지배 민족인 일본인과 피지배 민족인 중국인 사이에서 중간적인 지위에 있었다고 하면, 그것을 '소수민족 중간상인'의 역할로 설명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것은 재만 조선인에 대한 '2등공민론'의 한 판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소설 <인간의 조건>에서 재현된 조선인 광산 노동자와 그 주변 세계가 어느 정도의 사실성을 가지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다시 사실적 자료들을 교차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사실적 자료로서는 만주노공협회(滿洲勞工協會) 등의 통계 자료와 <요녕성(遼寧省) '만인갱(대량의 피학살자 무덤터, 萬人坑)' 조사>에서의 궁장령 철광 부분의 구술 자료이다.

제강소는 만철의 직계회사로부터 투자회사로, 그리고 일본 법인에서 만주국 법인으로 전환되었다. 1944년 4월에 소화제강소, 본계호석탄제철회사, 동변도철광을 합병하여 만주제철주식회사가 창립되었다. 松村高夫·江田憲治·解学詩, 2002, 『滿鐵勞動史の研究』, 經濟評論社, 332-334.

7) '불법적인 소수민족 중간상인'이라는 개념은 비공식 경제 부문에 관한 이론에서의 '합법적인 비공식적 수입 기회'와 '불법적인 비공식적 수입 기회'의 구분에서 시사를 받았다. Hart, Keith, 1973, "Informal Income Opportunities and Urban Employment in Ghana", *The Journal of Modern Africa Studies*, Vol. 11, No. 1, 69쪽.

8) Min, P. G. and Kolodny, A., 1984, "The middleman minority characteristics of Korean immigrants in the United States", *Korea Journal of Population and Development*, Vol. 23, No. 2. 소수민족 중간상인에 대한 이론은 Bonacich, Edna, 1973, "A Theory of Middleman Minoriti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38을 참고하라.

www.kci.go.kr

Ⅱ. 고미카와 준페이와 소설 〈인간의 조건〉

소설 <인간의 조건>은 저자의 체험이 담긴 자전적인 소설이다. 저자는 1916년에 관동주의 대련만(大連灣)에 있는 한 한촌에서 태어나, 대련(大連) 1중학교를 졸업하고, 1933년에 만철의 장학금을 받아 도쿄상과대학(현재의 一橋大學)에 입학하였으나 이듬해 자퇴하고 광산이나 가정교사 일을 하다가, 1936년에 다시 도쿄외국어학교(현재의 東京外國語大學) 영문과에 입학하였다. 1938년에 독서 서클과 연구회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특별고등경찰(特高)에 체포되어 고문을 당하기도 했다. 1940년에 졸업과 함께 소화제강소 본사에 취직하였다.

소화제강소에서 고미카와가 하는 일은 생산계획의 기초적인 자료를 조사하는 것이었다. 그는 각국의 전략자원의 존재 상황과 중요 물자의 생산액의 자료를 입수할 수 있었다.[9] 고미야마 료헤이(小宮山量平, 1916-2012)에 의하면 잡지 <통제경제(1940년 9월 창간)> 편집부가 1941년 12월 8일 진주만 기습 공격 직전에 미국과의 개전이 부당하다는 자료를 받았는데, 자료를 보낸 사람이 쿠리타 시게루(栗田茂, 곧 고미카와 준페이)였다고 한다.[10] 자료에는 세계의 전략물자 16개 품목 보유량이 미국이 72퍼센트, 일본이 2퍼센트라는 것, 곧 미국의 전략물자 보유량이 일본의 36배에 달한다는 것이었다.[11] 고미카와는 일본이 미국과 개전을 하자, “군국주의든 무엇이든 최후에 내리는 정치적 판단은 가장 객관적이고 냉정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나는 파시즘의 논리를 깨닫게 되었다”고 회상했다.[12]

고미카와는 1941년 봄에 결혼하여 사택에서 신혼 생활을 하고 있었다. 당시 일본은 철과 석탄을 비롯한 전략물자가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관동군이 소화제강소에

9) 『五味川純平著作集』 月報 20 연재 「追憶」 17; 坂本梧朗, 2021, 「五味川純平の文学 第二節」. https://kakuyomu.jp/works/16816452219138989259/episodes/16816452219208938750

10) 고미야마는 오오쿠라(大倉)상업학교(현재 東京経済大学)의 야간부에 재학 중에 좌익운동 서클을 결성하였다가 특고에 구류되어 고문을 받고 전향했다. 석방 후에 중학교에 편입하고 졸업자격을 취득한 후에 도쿄상과대학 전문부에 진학하였다. 재학 중에 도쿄에서 발행하는 잡지 <통제경제>의 편집을 담당하였다. 1939년에 수료하고, 1940년에 아사히카와(旭川)에서 육군 제7사단에 입대하여 육군 소위로서 근무했다. 1947년에 이론사를 설립하고, 잡지 <이론>을 창간했다. 곧 고미야마는 고미카와의 도쿄상과대학 후배였다.

11) 자료 제공자는 만철조사부의 구시마 가네사부로(具島兼三郎, 1905-2004)였다. 小宮山量平, 2005, 「五味川純平の魅力」, 五味川純平, 『人間の條件』, 岩派書店, 596-97; 長島伸一, 2016, 「社会認識と自立的精神 小宮山量平をめぐる旅」, 『長野大学紀要』 37巻 3号. 31. 구시마는 1942년 9월에 발생한 ‘제1차 만철조사부사건’으로 검거되었다.

12) 『五味川純平著作集』 月報 20 연재 「追憶」16; 坂本梧朗, 앞의 글.

www.kci.go.kr

대해 전쟁 수행에 필요한 철의 생산량을 증가할 것을 요구하였다. 고미카와는 소화제강소가 소유하는 철광산의 취로율이 극히 저조한 원인을 조사하여, 중국인을 인간으로서 취급하지 않는 노무관리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고, 철광산에서의 증산을 위해서는 중국인 노동자의 노동 조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논문을 썼는데, 이 논문이 상사의 눈에 들게 되어 본사에서 100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철광산의 노무관리자로 부임하게 되었다.

일본군은 당시 청향(清郷)공작으로 체포한 반만항일분자를 '특수노동자(후술)'로서 국경의 요새 축조 등에 혹사한 후에 이들을 다시 민간회사에 불하하였는데, 고미카와가 있었던 철광산에도 특수노동자들이 불하되어 왔다. 고미카와와 같은 관대한 관리자의 존재는 특수노동자들이 도망치기에 절호의 찬스였다. 현장에서 특수노동자 9명이 도망을 시도하다가 체포되었다. 헌병대가 이들을 참수형에 처하는 현장에서 고미카와를 입회인으로 지정했다. 고미카와는 5명째 참수가 진행되자 처형을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13] 이 일로 고미카와는 헌병대에 연행되어 갔으며, '산업요원'으로서의 소집 면제가 취소되어 1943년 11월에 입대하였다.

고미카와는 대학 졸업자로서 간부후보생을 지원할 수 있었지만, 지원하지 않고 사병으로서 복무하면서 동부의 소만국경을 전전하다가, 1945년 8월 13일에 소련군과의 전투에서 부대가 전멸되었다(158명 중 4명이 살아남았다고 한다). 고미카와는 "전멸한 소만 국경진지에서 살아남은 순간에 광산에 들어간 전후로부터 이 전멸의 날에 이르기까지 전쟁의 소모품이 된 한 남자의 이야기를 쓰려고 생각했다"고 회상했다. 고미카와는 1945년 12월에 반생반사의 상태로 아내가 기다리고 있는 안산시로 귀향하였고, 1947년에야 일본에 귀국할 수 있었다.

고미카와 준페이가 최초로 발표한 작품은 단편 <가족재판>이었다. 이 작품은 1950년 6월 11일자 <주간아사히(朝日)>에 모집요령이 게재된 '100만엔 현상 100만인의 소설'에 유모어 소설 부문에 응모하여 1등 특선 다음의 우수상에 입선되어, 1951년 6월에 간행된 동지의 여름 증간호에 게재되었다. <가족재판>에서는 고미카와 순(五味川淳)이라는 필명을 사용했는데, 이후에도 같은 필명으로 <주간아시히>에 3편의 단편소설(1951년 10월, 1952년 1월, 1952년 4월)이 게재된 것이 확인된다. 저자는 "생활을 부인의 미싱 가정부업(内職)에 의지하면서, 전화도 없는 4첩반2간의 아파트에서 밤을 새워 집필하여" 1부와 2부를 탈고하였다.[14]

13) 「座談会 '十五年戦争'の意味」, 『極限状態における人間』, 三一書房; 坂本梧朗, 위의 글.

www.kci.go.kr

고미카와가 문단과는 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인간의 조건>은 삼일서방(三一書房)에서 삼일신서(三一新書)의 하나로 제1부가 출판되고, 제6부 완결판이 1957년 1월에 출판되었다(77). 당시 출판사가 등단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무명'의 작가의 장편소설을 출판하는 것이 예외적인 경우였지만, <인간의 조건>은 <만가(輓歌, 1956년 동방서방 출판)>와 함께 출판사가 '제2문단'을 산출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고, '투기적'이라고도 할 수 있었지만 상업적으로 성공을 거둔 경우였다(88).[15] 삼일서방의 편집장이 '순문학'과 '대중문학'을 구분하는 문단의 풍토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끼고, <인간의 조건>을 출판하였다고 한다(79).

저자는 소설의 서문에서 "무엇을 쓴다고 해도, 그것이 이야기라고 하면, 재미있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여기서 말하는 재미는 숙련된 문학가들이 '통속'이라고 비방하는 재미이다. 만일 대중의 건강한 욕망이 추구되고, 친근하고 쉽다고 느끼는 재미가 그러한 것이라고 하면, 나는 그것을 탐구하고 싶다"고 했다(81). 저자는 또한 1958년에 이루어진 한 대담에서 자신은 문단과는 전혀 관계가 없으며, 아마추어라든지 '비문학적 작품(강조는 필자)'이라는 평가가 있다는 사실을 토로했다(88). <인간의 조건>이 문단에서 호평을 받지 못한 데는 <인간의 조건>이 출판 저널리즘에 의해서 1,300만부가 팔리는 공전의 베스트셀러가 되었다는 편견이 작용한 탓인 듯하다.

인간의 조건이 초베스트셀러가 되는 데는 1958년 2월 16일자 <주간아사히>가 권두에 <숨겨진 베스트셀러 인간의 조건>이라는 제목의 7면에 달하는 특집 기사를 게재한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 기사에서는 지난 1년간 19만부가 팔렸다고 했는데, 이후 <요미우리(讀賣)신문>의 광고를 보면 90만부 돌파(1958년 4월 9일 조간), 170만부 돌파(동년 8월 13일 조간), 240만부 돌파(동년 12월 2일 조간)로 이어졌다. 전체 6부의

14) 高橋啓太, 2020,「五味川純平『人間の條件』に関する序論的考察」,『花園大学文學部研究紀要』第52號, 78-79. 이하 소설 <인간의 조건>에 대한 출판 상황과 평가 등에 관한 서술은 따로 인용 없이 면수만 표기한다.

15) <만가>의 저자 하라다 야스코(原田康子, 1928-2009)는 홋카이도(北海道) 쿠시로(釧路)시에 거주하는 <동홋카이도신문>의 기자였는데, 1954년에 동인잡지 <홋카이도문학>에 게재된 단편소설이 <신조(新潮)>동인문학상의 최종후보에 올랐다. 이것이 인정을 받아 하라다는 <만가>를 <홋카이도문학>에 연재할 수 있었고, 연재 종료 후에 강담사(講談社) 계열의 동방서방이 단행본으로 출판하였고, 하라다는 이 소설로 제8회(1956년도) 여류문학상을 수상하였다. 이를 보면 하라다는 고미카와와 비교하면 문단과 관련성이 더 있었으며, '아마추어'라고 하기가 더 어려웠다. 1958년 말에 <요미우리신문(1958. 12. 29. 서간)>의 '문단 10대 뉴스'에서 '베스트셀러의 조건'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1957년의 <만가>에 이어 1958년에 <인간의 조건>이 베스트셀러(240만부 판매))가 된 것을 보면 '아마추어 붐'이 도래한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고 했다(86-87).

www.kci.go.kr

합계이지만 240만부 판매는 이미 소설 판매에서의 신기록을 수립한 것이었다(79-80). 1958년에 이미 연극과 영화 제작이 결정되었으며, 영화는 3부로 나누어서 1959년에서 1961년에 걸쳐 상영되었다.[16]

<인간의 조건>은 일본의 식민지 시기, 일본의 군대(내무반), 전후의 귀환 등을 모두 서술한 방대한 텍스트이다. 저자의 극적인 생애가 반영되어 이야기가 핍진하게 전개되며, 주인공 가지(梶)의 고난과 용기가 독자들에게 재미와 감동을 주었다. 인간의 조건에 대한 독자의 호응의 이면에는 1950년대의 시대적인 배경이 있었다. 1950년대는 출판 저널리즘이 전성기를 맞아, [17] 신인상을 창설하였으며, [18] '서클의 시대', '기록의 시대'로 불리듯이, 대중들의 문학 참여가 매우 활발한 시기였다.[19] 이러한 시대적인 배경에서 신인 작가들이 베스트셀러 작가로서 등장할 수 있었다.

동시대의 <인간의 조건>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대중성은 높지만 문학성은 높지 않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낭만주의의 대중성(영웅주의)', '대중소설', '계몽서', '일종의 인생 안내', '문학적 감동보다는 윤리적(인생적) 감동' 등과 같은 평가로 나타났다. 그러나 문단의 평가와는 다르게, 문단 바깥에서는 대중들의 호응과 마찬가지로 높은 평가를 내렸다. 그것은 '불합리한 사회조직에서의 개인(현대의 영웅)의 악전고투', '동시대의 도덕적 문제에 답하는 문학의 과제', '전쟁문학의 골격으로서 거의 완전에 가까움', '전후에 창작된 전쟁문학의 집대성' 등과 같았다. 다께우치 요시미(竹內好)는 노마 히로시(野間宏, 1915-1991)의 <진공지대(眞空地帶)>와의 비교를 통하여 "<인간의 조건>에서 기술된 군대는 일상성으로부터 연속하고 있기보다도, 군대 자체가 전체 사회이다"라고 하면서 군대가 전체 사회와 중첩된다는 인식을 높이 평가했다.[20]

---

16) 감독은 고바야시 마사키(小林正樹)였다. 모두 3편으로 제작하였는데 1편(소설의 1부와 2부)은 1959년 1월, 2편(소설의 3부와 4부)은 1959년 11월, 3편(소설의 5부와 6부)은 1961년 1월에 각각 개봉하였는데, 3편을 모두 합치면 상영시간이 9시간 30분에 달하는 대작이었다. 베네치아 영화제 은상을 수상했다),

17) <주간아사히>는 1922년에 창간되었지만, <주간신조(新潮)>가 1956년에, <주간여성>이 1957년에, <여성자신>이 1958년에 각각 창간되어 '주간지 붐'이 도래했다. 1958년의 <주간아사히>의 발행부수는 153만부에 달했다(80).

18) <문학계(文學界)>신인상(1955년, 제1회 수상작은 <태양의 계절>이었음), <중앙공론(中央公論)>신인상(1956년, 제1회 수상작은 <나라야마 부시코(楢山節考)>였음), <군상(群像)>신인문학상(1958년) 등이 창설되었다(86).

19) 이동진, 2017,「김시종과 오사카 서클 시지 <진달래> 1: 정치와 시 사이」,『사회와 역사』116, 258. 노동자교육협회가 편집하는 <학습의 친구>(제54호, 1958년 4월)에서는 고미카와와 요코하마 생사(生絲)검사소 서클 회원들의 좌담회 '인간의 조건을 읽는다'를 게재했다(81).

20) 高橋啓太, 앞의 논문, 81-83. 다케우치는 또한 <인간의 조건>을 다이부쓰 지로(大佛次郎)의 <귀향(歸鄕)>이나 가와바다 야스나리(川端康成)의 <고도(古都)>보다 못할 것이 없다고 극찬하였다. "이 글은 조금 중압감을 주는 소설이다. 전 6부 어느 곳에도 숨 돌릴 겨를이 없다. 그러나 아무리 답답해도 누군

저자 고미카와와 소설 <인간의 조건>은 오랫동안 일본의 문단에서 잊혀진 작가이고 작품이었다(77). 그런데 2000년대 이후에 <인간의 조건>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졌다. 여기에는 이야기의 무대가 만주라는 점, 패전 후의 귀환이 기술된 점 등이 주목을 받았다. 카와무라 미나토(川村湊)는 일본인의 다수가 '약자로서의 가해자'이고 중국인과 조선인 등이 '약자로서의 피해자'인데 비해서, 주인공이 '강자로서의 피해자'로서 회사와 군대에 대치하는 자세가 식민지에서의 일본인의 가해자성을 약화시킨다고 하는 전후 일본인 대중의 '역사 감정'에 호응한 점을 지적하였다. 이 외에도 전중과 전후를 연속적으로 기술하였고, 제6부에서의 소련에 대한 비판(이것은 1950년대 후반의 스탈린 비판을 배경으로 한 것임), 소설에 등장하는 중국인과 러시아인의 타자화 등이 논급되었다. 박유하는 '귀환 문학'이라는 범주를 설정하여 전후 문학을 재검토할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인간의 조건>에 대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귀환할 수 없었던 군인의 이야기"라고 했다(84).[21]

근래의 <인간의 조건>에 대한 재평가를 보면 문학성(문학적 재현)보다는 사실성(사실의 현시)의 측면이 더 주목되고 있고, 전체 6부 중에서 3부 이후에 전경화되는 군대소설로서의 일면—다양한 군대소설의 분절들—이 가장 주목을 받았으며,[22] 6부에서 전경화되는 귀환소설의 측면이 또한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평가는 '전후문학'이라는 틀에서 이루어지는 평가였다. 이 글에서는 <인간의 조건> 중에서 주목을 덜 받은 1부와 2부의 노동(광산)소설로서의 의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저자 자신도 강조했던 '문학성'과 '대중성'의 비교를, 이 글에서는 재현성과 사실성의 비교라는 관점에서 주목해보고자 한다. <인간의 조건>이 '비문학적 작품'이라고 하면, 그것은 '사실성이 강한 문학 작품'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

가가 한번은 써야 할 것이었다. 그것을 이 작가가 대표해서 썼다. 이 작가 외에 아직 아무도 쓰지 않았다고 생각되므로 감히 대표라고 한다. 작가는 자기만의 내적인 충동에 의해 쓰지만 그것이 저절로 다수를 대표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누구든지 이 소설은 한번은 읽어야 한다는 것은 지나칠지 모르지만, 어쨌든 읽는 것이 좋을 것이다." 동락헌, 2013, 「인간의 조건‥고미카와 준페이의 자전적 소설을 읽고」, 2013. 10. 21(https://m.blog.naver.com/vvvpkk/30178023901).

21) 成田龍一, 2010, 『戦争経験の戦後史: 語られた体験/証言/記憶』, 岩波書店, 133-134; 五十嵐惠邦, 2012, 『敗戦と戦後のあいだで: 遅れて帰りし者たち』, 筑摩書房, 77-78; 川村湊, 2005, 「'人間の條件' (1956-1958) 五味川純平 (1916-1995): 語り継がれた植民地と戦争の'記憶'」, 『現代思想』 33(7), 197; 朴裕河, 2016, 『引揚げ文学論序説—新たなポストコロニアルへ』, 人文書院, 15; 高橋啓太, 앞의 논문, 84-85에서 재인용.

22) 1960년대에 한국에서 <인간의 조건> 번역서의 수용 양상에 대해서는 이행선·양아람, 2017, 「1960년대 초중반 미·일 베스트셀러 전쟁문학의 수용과 월경하는 전쟁 기억, 재난·휴머니즘과 전쟁책임 노먼 메일러 <나자와 사자>와 고미카와 준페이 <인간의 조건>」, 『기억과 전망』 36을 참고하라.

www.kci.go.kr

따라서 문학의 재현성과 문학의 제재가 되는 사실성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데 유용한 텍스트라는 데 주목하고자 한다.[23]

Ⅲ. 소설 〈인간의 조건〉에 나타나는 재만 조선인 광산 노동자의 '조장(把頭)'

<인간의 조건> 1부와 2부는 1943년 소화제강소 궁장령 철광을 무대로 하여 노무과 직원인 주인공 가지의 중국인 특수 광부에 대한 동정적인 노무 관리와 군국주의자들의 가혹한 노무 관리가 대립하는 구조로 전개되는 이야기이다. 여기에는 부차적이기는 하지만 조선인 광산 노동자의 조장이 등장한다. 소설의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인간의 조건>은 '인간주의'가 배경을 이루고, 그것이 '반전소설'을 끌고 가는 힘이다. 소설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인간주의'의 편에 선 사람과 '반인간주의'의 편에 선 사람들로 갈려져 있다. 1부와 2부의 광산소설 부분에서는 일본인 현장 감독조장, 특수 노동자를 관할하는 헌병 장교 등과 중국인 노동자가 대립을 이루는데, 군국주의 논리를 따르는 일본인들은 반인간주의에, 그 희생자들인 중국인 노동자, 특히 '특수노동자'들은 인간주의의 편에 서 있다. 다만 일본인들 가운데 주인공인 가지와 노무계의 동료 오키시마만 인간주의 편에 서 있었다. 가지보다 대여섯 살 위로 현장 경험이 많은 오키시마는 가지의 영향을 받아서 점차 인간주의의 편에 서게 된다.

<인간의 조건> 1부와 2부에만 조선인은 부차적인 존재이기는 하지만 등장하는데, [24] 그렇다면 조선인 광산 노동자가 어느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이 주목된다. 소설에서 이름이 나오는 조선인 두 사람은 모두 반인간주의 편에 서 있다. 다시 말하면 조선인은 중국인 광산 노동자보다는 군국주의자인 일본인 직원들의 편에 서

23) 1953년에 사회학자 히다카 로쿠로(日高六郎, 1917-2018)는 「문단과 저널리즘」이라는 글(『岩派講座 文學』, 岩派書店)에서 "문단의 최대의 결점은 그것이 거의 문단인 내부와 잡지 편집자 등의 인맥을 벗어나지 못하고, 사회적·국민적 지반으로부터 떨어져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문단의 외부에서 새로운 문학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히다카의 글은 '국민문학 논쟁'의 배경에서 나왔다(85).

24) 영화 <인간의 조건> 2편(곧 소설로서는 3부) 이후에 등장하는 조선인으로서는 주인공이 전선을 이탈하여 귀향하기 위해서 남쪽으로 오는 과정에서 스쳐 지나가는 한 조선인 농민 가족이 유일하다.

있는 것으로 서술되어 있다. 소설에 나오는 조선인 두 인물은 한 명은 조장으로, 다른 한명은 '불법적인 소수민족 중간상인'으로 등장한다. 나중에 보겠지만 구술 자료에서는 조선인 '특수노동자'도 있었지만, 소설에서는 '소수민족 중간상인'에 속하는 두 명의 조선인을 등장시켰다. 조선인 조장은 일본인 조장 2명과 마찬가지로 조장 중에서 가장 '악질적인', 곧 노동자들을 가장 착취하는 존재로 등장한다.

궁장령 철광에는 1만 명의 광산 노동자가 200개가 넘는 크고 작은 하청조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임금을 착취하지 않거나 식료품 할당량을 속이지 않는 조(조장-필자)가 없었다.[25] 조선인 조장도 그러한 조장 중의 한 사람이었다. 소설에서의 궁장령 채광소의 직원 구성을 보면, 2개 채광구에 각각 기술주임으로 일본인 2명(히구치와 고이케)이 있고, 그 아래에 현장 감독으로 일본인 2명(오카자키와 가와시마)이 있다.[26] 소설에서는 현장 감독과 노무계가 대립하는 것으로 나온다. 현장 감독들은 노무계에서 보내주는 노동자들의 수가 부족하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곧 현장 감독 오카자키는 2, 500명을 요구했으나 노무계에서는 1, 500명만 현장에 투입하였다. 1개 채광구의 주야 교대조로 2, 500명을 요구한 것은 사실상 가용할 수 있는 전체 인원이었다.

1943년은 전쟁 수행을 위해서 채광량에 대한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노동자의 수도, 채광량도 가장 많던 해였다. 궁장령 채광소의 출광 성적이 나쁜 것은 취로율이 낮기 때문이었다.[27] 본사에 있던 가지가 궁장령 채광소로 발령받은 것도 이 때문이었다. 가지는 하청조장에 의한 하청제를 회사 직할제로 전환하고자 했다.[28] "조장

25) 고미카와 준페이, 2013a, 앞의 책, 33, 74. 이하 소설의 면수는 인용 없이 면수만 표기한다.

26) 현장 감독으로서는 "기술주임은 그의 상사이지만 인간의 지배자는 아니다(101)."

27) 1943년 무순탄광 출근율을 보면 재적자 합계 75퍼센트였고, 재적 일본인은 79퍼센트, 재적 중국인은 74퍼센트, 고원(雇員) 이상은 86퍼센트, 시간급공(常傭方)은 82퍼센트, 성과급공(常傭夫)은 69퍼센트에 불과했다. 『撫順炭鑛 統計年報 昭和十八年度 第一編』, 16; 松村高夫·江田憲治·解学詩, 2002, 『滿鐵勞動史の研究』, 經濟評論社, 320쪽.

28) 전후에 일본의 대표적인 노동경제학자로 활동하였던 수미야 미키오(隅谷三喜男, 1916-2003)의 부고에서 그가 <인간의 조건>의 모델이었다고 했다. 이것은 주인공 가지가 제출한 노무관리 보고서를 수미야가 1941년과 1942년에 발표한 다음 논문으로 본 것이다. 隅谷三喜男, 1941, 「滿洲勞動問題序說(上)」, 『昭和制鋼所調查彙報』 第二卷 第二號; 1942, 「滿洲勞動問題序說(下)」. 『昭和制鋼所調查彙報』 第二卷 第三號. 1940년 9월에 수미야는 도쿄제국대학 경제학부에 재학하면서 학교 친구들과 함께 자본론 독서회를 조직하는 등 활동을 하다가 체포되어 3개월간 구류를 살았다. 다음해 5월에 만주에 와서 소화제강소에 취직하였다. 이후 소화제강소의 중국인 노동자의 노동 조건과 생활 상황을 조사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위 논문을 발표하였다. 수미야는 "만주의 노동자가 농촌 노동을 벗어난 후에 아직 근대 노동자가 되지 못하고, 반농노식의 피고용 노동자로 정체되었다"고 지적하였으며, 인도주의적인 동정을 가지고 만주 노동자의 비참한 상황을 기술하고 식민지 노무관리의 잔혹과 야만을 비판하였다. 李廷

제도라는 신분적인 관계를 없애고 직할제도로 전환하는 것이 골자였다.…우선은 노동자의 임금을 지나치게 착취하는 조라든가 가동 실적이 나쁜 조부터 해체시키고 그 조의 노동자를 노무계가 직할하는 방법을 취하려고 했다(72-74)."

이러한 가지의 노무 관리 개선 방안에 대해서 현장 감독과 조장들의 반발이 컸다. 현장 감독과 조장들이 결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현장 감독과 조장들의 암거래가 있었다(76)." 가지의 노무 관리 개선 방안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노무계의 일본인 직원 중에도 있었다. 아니 일본인 직원 전체가 반대한다고도 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가지의 노무 관리 개선 방안은 중국인 광산 노동자에 대한 대우를 개선함으로써 그들의 노동 의욕을 높인다는 것인데, 일본인 직원 전체가 중국인 노동자에게 가야 하는 배급 물품을 줄여서 자신들의 배급품을 늘리려고 했기 때문이었다. "이곳에선 부수입이라는 것이 있다(91)."

소설에서는 가지와 대립되는 노무계 직원으로 후루야가 등장한다. 후루야는 본사에서 부임해 온 가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자신은 중학교 졸업하고 현역 복무를 한 후에 올 봄에 용원(傭員, '日給者')으로 시작해서 준직원을 거쳐 직원('月俸者')에 오르기까지 꼬박 10년이 걸렸다.[29] 그가 가지의 월급과 같아지려면 앞으로 몇 년이 더 걸릴지 모르는데, 그동안 가지도 승진을 거듭할 것이다. 대학을 나온 지 4년 밖에 안 된 풋내기가 관리반장이 된 것인데, 더구나 그는 소집 면제를 받았다는 소문이 있다. 그는 노무 관리를 실제로 해 본 경험이 없는 자가 10년의 경험자보다 잘 알고 있다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게다가 자신은 언제 군대에 소집될지도 모른다(90)."

가지가 기안한 <불량 '조장제도(강조는 필자)' 폐지에 관한 건>이 일부 승인되어, 조장 중에서 가장 불량한 자들로서 164조의 무타, 58조의 고바야시, 103조의 가네다 등이 지목되었다. 무타와 고바야시는 광산에서 얼마 안 되는 일본인 조장 중 한 명이었고, 가네다는 조선인 조장이었다(93). 가지는 조장 중에서 일본인 조장이 가

江·庚欣. 1992,『學問·信仰與人生: 隅谷三喜男傳』, 中國社會科學出版社; 王中忱, 2017,「葉榮鐘與矢內原忠雄: 在殖民批判知識譜繫上的考察」,『保馬』, 2017年 11月 17日. https://www.luoow.com/dc_hk/103758662

29) 1939년 6월말 소화제강소의 종업원 구성을 보면 일본인이 월급제가 1, 993명, 일급제가 9, 648명(합계 11, 641명)이었고, 만주국인은 월급제가 31명, 일급제가 57, 193명(합계 57, 224명)이 있었다. 昭和製鋼所, 1939,「株式會社昭和製鋼所現況」,『日本鑛業會誌』55卷 654號, 52. 1942년 4월 1일 만철이 사원제를 개혁하여 원래의 직원(월급제), 고원, 용원(이상 일급제) 외에 준직원(월급제)을 추가했다. 蘇崇民, 1990,『滿鐵史』. 中華書局, 838. 소화제강소의 직계에 대해서는 5장을 참고하라.

장 악랄하다고 했다. “산하이관 근방에 가서 유랑하는 노동자들을 모아 쥐꼬리 만한 선금을 주고 그걸로 평생을 옭아매고 있고. 5엔을 기차 삯으로 쓰고 모자란 만큼은 걷게 해서 광산에 도착하면 모집비로 20엔이 들었다고 사길 쳐서 해먹지. 회사는 거대 자본가니까. 5엔을 미리 당겨줬다고 해서 그걸 받은 노동자들에게 평생 500엔, 5, 000엔을 쥐어짜낸다는 거요. 작은 조장(小把頭)을 몇 명 두고 도망치려는 놈을 붙잡아서 반쯤 죽을 때까지 두들겨 패고, 노동자는 하나의 조에서 도망쳐 나와도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조에 들어가지 않으면 일조차 하지 못하고, 어느 조에서나 같은 처지에 놓이니까 포기해버리는 거요. 조장이라고 불리는 자들은 만주인이든 일본인이든 조선인이든 다 똑같더군. 그중에서도 일본인 조장의 수법이 제일 악랄해요(131-132).”

하청 노동자의 평균 일급은 1엔 70센이었으나 실제 노동자들이 손에 쥐는 것은 1엔도 되지 않았다. 그것은 하청 조장의 중간착취 때문이었다(128). 1940년대에는 노동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하청 조장제(把頭制)’가 부활하였다.[30] 통계 자료에서는 일본인이나 조선인이 조장(把頭)이 된 사례는 확인되지 않는다. 소설에서 일본인 조장이 가장 악질적이었다는 것은 그가 거느리는 하청 노동자들이 중국인이었음을 추정하게 한다. 후에 나오지만 조선인이 중국인 조의 조장이 될 수도 있었다.

아마도 조선인 조장이 거느리는 하청 노동자들도 중국인이었을 것이다. 후에 나오는 조선인 조의 존재는 조선인 조장의 존재를 암시하지만, 반드시 조선인 조장이 조선인 하청노동자를 착취한 것은 아닐 것이다. 혹은 조장과 조원들이 결탁해서 부정을 저지를 수도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소설에서는 착취당하는 노동자는 중국인 노동자로 나오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중국인 조를 거느리는 일본인 조장 2명과 조선인 조나 중국인 조를 거느리는 조선인 조장 1명이 가장 악질적인 조장이었다는 뜻일 것이다. 악질 조장으로 지목된 세 명이 거느리는 조는 500명에 달하는 것을 보면, 이들이 조원 50명 정도를 거느리는 소조장(小把頭)가 아니라 3개 조 정도를

30) 1941년 1월 16일자 <무순탄광 하청 조장(把頭) 사용 내규>에 의해 대조장제가 부활하였다. 하청 조장은 직할제가 아닌 하청제의 조장이었다. 회사는 관할하는 성과급공(常傭夫) 임금, 식권은 하청 소조장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하고(제5조와 제6조), 소조장의 수당은 대조장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한다(제12조)는 규정이 있었고, 동 내규의 세칙 및 설명에서는 하청 조장은 항상 하청이라는 명칭을 붙여서 다른 조장과 구별한다는 규정이 있었고, 1944년 2월에 발표한 <서노천굴(西露天掘)사무소 조장 수당 내규>에서는 소조장 급여는 대조장에게, 작업조장 급여는 소조장에게 지불한다는 규정을 둠으로써, 직할제에 있어서도 대소조장의 권한을 강화하는 추세에 있었다. 松村高夫·江田憲治·解学詩, 앞의 책, 147-148.

www.kci.go.kr

거느리는 대조장(大把頭)이었음을 나타낸다.[31]

소설에서는 나중에 볼 구술 자료와는 달리 중국인 조장보다는 일본인 조장과 조선인 조장을 더 착취적인 존재로 부각시킴으로써, 중국인 노동자에 대한 착취의 책임을 중국인 조장보다는 일본인(소장, 현장감독, 조장 등)에게, 그리고 그보다는 약간 덜 하지만 조선인(조장과 후에 나오는 '불법적인 소수민족 중간상인')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소설에서는 일본인 직원과 일본인 조장 간의 결탁이 중심을 이루고, 조선인 조장은 좀 어중간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기술되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다. 무타가 후루야에게 20엔을 바치고 정보를 얻는다.[32] 후루야는 가지가 세 사람을 노리고 있다고 말하고, 그들이 해임된다 해도 자신들이 거느리는 노동자들을 빼돌릴 수 있다고 넌지시 제안한다. 근처 탄광에 노동자들을 팔면 일인당 15엔씩 모집비를 받을 수 있다. 그 과정에서 후루야는 1인당 3엔을 받을 수 있을 것인데, 세 사람이 거느리는 노동자 500명을 모두 빼돌리면, 1, 500엔이 떨어질 것이다. 1, 500엔은 월급의 약 1년 6개월치에 해당되는 액수였다(98).[33]

소설에서 조선인 조장 가네다의 목소리는 해산당할 처지에 놓인 조장 세 명이 노무계의 가지에게 항의하는 장면에서 딱 한번 등장한다(129-132). 가네다가 "하지만 현장의 오카자키씨는 우리 조가 일을 잘한다고 칭찬하지 않았습니까?"라고 항의하

---

31) 무순탄광의 경우를 보면 대조장은 회사로부터 임금과 각종 수당과 노동자의 임금에서 수수료를 수령하고, 식당, 매점, 아편흡식소(烟館), 도박장, 위안소(妓院) 등을 운영하였으며 고리대를 운영했다. 수하에 수십명 내지 100명 이상의 회계(管帳先生), 소조장, 작업조장, 숙소 감독(看房先生) 등을 거느리고 있었다. 1943년 무순탄광에는 대조장이 14(1)명, 소조장이 139(112)명, 작업조장이 286(263)명이 있었다(괄호 안은 무순 각 광산의 조장의 수이고, 괄호 밖은 연태(烟台), 노두구(老頭溝) 등 支鑛(外地鑛—필자)의 조장의 수이다). 『昭和18年度 撫順炭鑛統計年報 第2編>, 77; 蘇崇民, 앞의 책, 638-639.

32) 무타가 건네주는 돈을 받으면서 후루야는 세 장인가 하다가 낡은 지폐이니 두 장일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20엔이라고 하면 월급의 2할 5푼이었다. 후루야는 또한 "무타가 고바야시와 가네다에게 자신에게 30엔을 주었다고 하고 각각에게서 10엔씩을 받는다고 하면 그가 공짜로 정보를 얻는 셈이겠다"고 속으로 생각했다. 가지에게 지목된 세 조장들은 가지의 부인 미치코(千美子)에게 500엔과 설탕과 술과 밀가루며 무명 등을 선물로 주고 갔다(117). 가지는 "세 사람이 1인당 1엔씩 착취한 돈으로 나를 매수해서 노동자들에게 계속 착취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겠다는 속셈이다. 설탕과 밀가루는 노동자들의 배급 창고에서 배급계인 마쓰다와 공모하여 빼낸 것이리라. 술은 군대 술 보급품에서 슬쩍 한 것이고, 무명은 현의 특별배급품을 속였을 것"이라고 생각했다(118).

33) 후루야의 월급은 80엔이었던 반면에 첸은 월급으로 환산하면 45엔이었다. "첸은 일급 1엔 50센을 받는데 2엔 50센을 받는 일본인보다 일을 잘한다. 본봉이 120엔 가까운 가지보다도 글씨를 잘 쓸 뿐 아니라 주판 놓은 기술은 차원이 다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당연한 논리가 실행된다면 가지는 첸의 자리를 후루야의 자리와 바꿀지도 모른다(112).…앞으로 10년쯤 더 지나면 일급 2엔은 될 것이다. 그래도 암거래로 값이 매겨지는 밀가루를 병든 노모에게 매일 먹이지는 못한다(203)." 나중에 나오지만 첸이 조선인 장명찬이 계획하는 특수 광부의 인신매매에 가담하게 되는 것은 곧 돌아가실 것 같은 어머니를 위해서 밀가루를 사기 위한 것이었다.

www.kci.go.kr

자, 가지가 "103조가 일을 잘한다는 건 압니다. 하지만 그것도 광부들이 일하러 나온 날이 그런 건데 일하러 나오지 않은 날이 더 많소. 조사해 보았더니 당신 조의 재적 수가 완전히 엉터리로 되어 있었소"라고 반박한다.[34] 이것을 보면 조선인 조장의 착취가 주로 재적 노동자의 수를 부풀려서 식품 등을 횡령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가네다는 또한 가지에게 "용납하지 않겠다니, 뭘 말이오? 당신도 우리랑 똑같이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 처지요, 무슨 권리가 있는데?"라고 따졌는데, 이에 오키시마가 가네다의 의자 다리를 걷어차며 "야 인마! 어디서 협박이야? 불알을 확 날려버릴까 보다"라고 했다. 조선인 조장이 일본인 직원에게 종속적인 위치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무타 등에 의해서 중국인 광부 150명이 도망갔다. 이어서 특수 광부가 등장하며, 이후의 이야기는 이들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간다.[35] 가지가 특수 광부의 관리 책임자가 되는데, 특수 광부는 반드시 군인 포로만은 아니었다. "팔로군과의 교전 지역에서 일본군은 종종 청향(淸鄕)공작이라고 해서 적성(敵性) 마을로 분류된 마을을 포위했다." 소설에서는 팔로군이라고 했지만, 국민당군대에서 포로가 된 사람들도 있었다. 소설에 나오는 특수 광부는 600여명이었다. "600여명은 군이 청향지구의 사내들을 포로로 잡아 북방의 변두리 개발(1939년부터 실시되었던 '북변진흥계획'을 지칭–필자)에 투입된 자들 중 일부였다(164)."

일반 노동자 숙소 넉 동의 거주자들을 다른 동으로 이주시키고, 영선계가 와서 철조망을 설치하고 정문에는 무장한 간수가 숙직할 수 있도록 감시소를 설치했다. 철조망에는 3, 300볼트 전류를 흘렸다(170-171). 특수 광부들이 화물차 객차에서 내려서 기진맥진한 상태로 숙소까지 걸어서 도착한 장면에서 조선인 조가 딱 한번 등장한다. 오키시마가 특수 광부들을 집합시켜 놓고 전류가 흐르는 철조망의 위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중국인 노무계원에게 조선인 조에 가서 개를 한 마리 끌고 오게 했다. "넌 조선인 조에 가서 개를 한 마리 빌려와. 항상 식용으로 두세 마리는 묶어

34) 이러한 하청조의 머릿수 채우기는 한설야의 <합숙소의 밤>에도 나왔다. 일본인 조장이 회사와 하청계약을 맺기 위해서 노동 능력이 없는 조선인 노인까지 모집하여 50명을 채웠으나 전쟁이 발생할 것 같다는 소문으로 중국인들이 징집을 두려워하여 탄광에 몰려오는 바람에 조선인 노인에게는 일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빚이 쌓여 갔다. 노인은 귀향하려고 기차역까지 갔으나 조장에게 붙잡혀 왔다. 한설야, 1995, 「합숙소의 밤」, 이북명·한설야·김남천 외, 안승현 엮음, 『일제강점기(1933-1938) 한국노동소설 전집 Ⅲ』, 보고사, 262-265.

35) 1942년 1월에서 4월까지 만주국의 비군사부문에 사역된 '특수노동자'의 총수가 25, 459명이었는데, 소화제강소가 3, 008명으로, 서란(舒蘭)탄광, 만주탄광, 본계호탄광제철회사 다음으로 많은 특수노동자를 사용했다. 松村高夫·江田憲治·解学詩, 앞의 책, 341.

www.kci.go.kr

두고 있을 거야." 오키시마는 특수 광부들에게 "너희들은 도망치고 싶을 것이다. 오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내일은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도망쳐서는 안된다"라고 하고, 신호를 보내자 노무계원이 잡고 있던 개를 철조망에 던졌다. "개의 목숨은 순식간에 불꽃이 되고, 연기가 되고, 누린내가 되어 허공으로 사라졌다. 특수 광부들은 표정을 잃어버린 듯 멍하니 서 있었다(185)."

Ⅳ. 소설 〈인간의 조건〉에 나타나는 재만 조선인 '불법적 중간상인'

소설 <인간의 조건>에는 조선인 조장보다 더 중요한 배역으로 등장하는 한 조선인이 있었다. 그는 채광소 직원이 아니면서 채광소의 일본인 직원과 결탁하여 노동자를 다시 다른 광산에 팔아넘기는 '악덕 브로커', 곧 '인신매매자'였다. 앞서 무타와의 대화 속에서 나온 후루야의 지문은 다음과 같이 이어진다. 노동자를 팔아넘기는 과정에서는 "여기 놈들에게 얼굴이 알려지지 않고 수완이 좋은 놈을 하나 부려야" 하는데, "그 놈한테 2개(2엔)는 들어가야" 한다(98). 그 사람이 조선인 장명찬이었다. 가네다와는 달리 장명찬의 목소리는 소설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중국인 노동자 150명을 빼돌리기 위해서 후루야와 장명찬이 만나는 장면을 중국인(소설에서는 만주인으로 표현되었음) 노무계 사원 첸(陳)이 목격하고, 상관인 가지에게 일러바쳤다. "마을 반점(중국인 음식점)에서 후루야씨가 어떤 사람과 함께 나오는 것을요. 얼굴에 큰 흉터가 있었습니다. 조선인 같았습니다. 그 사람 말이.…어젯밤 늦게였습니다. 그 조선인이 출구에서 후루야씨에게 말했습니다. 또 부탁합시다. 나와 당신은 공존공영입니다(197)." 그러나 가지는 첸의 말을 귀담아 듣지 못하였다. 가지로서는 노동 조건을 개선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인 노동자들이 도망을 간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특수 광부들은 조건이 가장 열악하였으므로 탈출을 기도하는 일이 많았다. 현장에서 네 명이 탈출하는 일이 발생했다. 가지가 대표들에게 왜 협조를 하지 않느냐고 하자, 그들은 "우리 다섯은 일본인 관리자와의 연락책에 지나지 않으니까 개인적인 행동에 제한을 줄 수는 없다"고 했다(261). 가지는 특수 광부들이 탈출하더라도 "일주일 이내에 지문이 보내지니까 지문을 대조하면 2주일 이내에 너희들은 체

www.kci.go.kr

포될 것"이라고 했다(262).[36] 장명찬이 특수 광부들에게 눈독을 들였다. 그는 무타에게 협조해서 수수료를 받는 것보다 자신이 직접 특수 광부를 팔아넘길 계획을 세웠다. 장명찬으로서는 "특수 광부를 100명 정도 그곳에서 데리고 나와 다른 광산에 팔아넘기면 모집비를 받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그 조의 조장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만 되면 무타나 고바야시의 푼돈에 이용당하지 않아도 된다. 또 그 후의 수입은 자신의 수완에 달려 있다(316)."

장명찬이 특수 광부를 팔아넘기는 계획을 실행하는 데는 광부 전용 위안소의 위안부 책임자인 진동푸의 도움이 필요했다. 위안소에는 만주인 여성이 예순 명쯤 있었다(79). 장명찬은 진동푸에게 "산하이관에서 데려왔다고 하고 모집비와 운임을 청구하면 25엔이나 20엔이고, 선금으로 10엔을 줬다고 하면 35엔이나 30엔이라고. 100명을 데리고 가면 3, 500엔이나 3, 000엔이나 되는데, 네가 준비만 잘해주면 절반을 줄게"라고 했다. 진동푸는 "1, 500엔이라고 하면, 1, 500명의 사내가 줄지어 자신의 몸에 올라탄다. 그 전체 무게에 버금가는 금액"이라고 생각했다(285).

진동푸의 역할은 첸을 회유하여 변전소에 근무하는 그의 공학당(관동주와 만철부속지에 설립된 일본어를 교수 용어로 하는 중국인 중등학교를 公學堂이라고 했음—필자) 동기인 추이로 하여금 변전소의 전기를 일시 차단하여 특수 광부들이 철조망을 넘을 수 있게 하는 것이었다(276). 진동푸는 첸을 유혹하여 특수 광부를 팔아넘기는 계획에 끌어들였다. "맡아줄 거죠. 보수는 당신과 똑같이 나눌 거예요. 그러면 밀가루 같은 건 얼마든지 살 수 있잖아요(279)." "난 조선인이 아니야. 돈 때문에 배신할 수는 없어(317)." "당신이 돈에 넘어갈 사람이 아니라는 것쯤은 알아요. 하지만 그 불쌍한 사람들을 구해주는 것도 나쁜 일은 아니잖아요." "…정말로 구해주는 것이 될까?" "물론이고말고요! 구해달라고 나한테 부탁했는걸요.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은 당신뿐이에요." 첸은 진동푸와 자신을 신임해 주는 가지 사이에서 마음이 흔들리다가 결국 진동푸의 제안을 수락하게 된다. 변전소의 추이는 첸에게서 제안을 듣자마자 기꺼이 받아들였다.

진동푸는 처음 만났을 때 장명찬이 너무나 유창한 중국어로 말해서 그가 조선인이라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장명찬은 '뺨에 칼에 벤 깊은 흉터가 있었다(280, 284).' 진동푸가 "그 흉터는 어쩌다 생긴 거죠?"라고 묻자, 장명찬은 그것은 "정

36) 광산노동자에 대한 지문 제도는 무순탄광에서는 1924년에 시작되었다. 安藤彦太郎 編, 1965, 『滿鐵: 日本帝國主義と中國』, 御茶の水書房; 松村高夫·江田憲治·解学詩, 앞의 책, 16.

상적인 일로는 밥벌이를 할 수 없다는 표식이지"라고 대답했다(285). 다음은 장명찬과 진동푸의 대화 내용이다. "난 너희들을 동정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사람이야. 그래 난 일본인한테도 너희 중국인한테도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는 조선인 '부랑자(강조-필자)'야. 장명찬이 이름이지. 기억해둬. 내가 조선인이라서 이런 그럴싸한 제안도 듣지 않겠다는 거야?" "그럴 리가 없죠. 당신은 내 손님인데." "그자들은 어차피 죽게 되어 있어. 일본인들이 살려둘 것 같아. 그자들을 데리고 나와서 일반 노동자로 만들어주는 게 뭐가 나빠. 난 일본인의 하청을 받아 이곳 노동자들을 빼돌리는 '장사(강조-필자)'를 하고 있지만, 이번 건만은 너와 둘이서만 나눠먹을 생각이야(286)."

장명찬의 계획에 의해서 특수 광부 열한 명이 숙소에서 탈출했다. 가지가 토요일부터 사나흘 동안 휴가를 가기로 했는데, 이 때를 이용해서 후루야는 장명찬과 짜고 일반 노동자들을 빼돌리려고 했다. 다음은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이다(66-67). "조장에게 대부분 빚이 있는 듯하니 선금으로 낚을 수 있을 거야." "겨우 쉰 명인가. 수십 일이 걸려서 겨우 쉰 명 밖에 낚지 못하다니, 이래서야 장사가 되겠나." "공임이 많아져서 어쩔 수 없이 찌꺼기밖에 낚을 수가 없었어. 가지란 놈은 기분이 좋을 거야. 노무계의 실적이 올라서 돌격 월간의 톱이 되었으니까." 장명찬은 후루야에게 "가지가 휴가를 받아서 없다면 당신이 특수 광부들을 분뇨 건조장으로 데리고 가겠지"라고 하고, [37] "도중에 괴한이 나타나서 당신을 묶는 거야. 특수 광부들은 모두 도망가고 그걸 내가 데리고 가지. 쉰 명, 한명 당 30엔만 해도 1, 500엔이 돼.…당신 돈 필요하잖아? 나도 필요해. 당신과 난 공존공영이니까"라고 했다(68).

가지가 휴가를 가려고 했을 때 또 다시 특수 광부들이 도망친 사실이 드러났다. 오키시마가 "중국 음식점에서 제일 먼저 동조할 것처럼 떠들던 황과 리우가 도망쳐 버렸네. 열여덟 명이 한꺼번에 말이야"라고 했다(83). 오키시마는 조장 한 명으로부터 자기 조의 광부 두세 명이 수상해 보여서 다그쳐 물었더니 어떤 사내에게서 다

37) 가지는 특수 광부들의 협조를 가져오기 위해서 소장에게 올린 기안들이 부결되자, 대신에 특수 광부 50명 정도씩 피크닉에 데리고 가기로 했다. 피크닉이란 채광소에서 10리쯤 떨어진 들판에 있는 분뇨 건조장에서 건분 작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 "특수 광부들은 울타리나 철조망으로 둘러싸이지 않은 대지에 서서 가을의 높고 푸른 하늘에서 시원하게 타고 있는 태양을 우러러보았다. 쉰 명의 사내들은 한가롭고 즐겁게 작업했다.…해가 서쪽으로 기울어 숙소로 돌아온 사내들의 얼굴에선 평소 현장에서 돌아왔을 때의 어둡고 피곤한 기색은 보이지 않아서 진짜 피크닉을 다녀온 사람들 같았다. 분뇨 건조장으로 가는 피크닉은 이삼일 간격으로 몇 차례 계속되었다. 고미카와 준페이, 2013b, 앞의 책, 57-59, 64. 이하 소설의 면수는 인용 없이 면수만 표기한다.

www.kci.go.kr

른 광산으로 옮기는 조건으로 선금을 10엔씩 받았다는 사실을 보고받았다. 조장은 선금을 준 사내의 볼에 깊은 흉터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오키시마가 실적이 좋지 않는 조를 알아보니 이미 20명 가까운 광부가 중간에 빼돌려졌고, 근일 중에 빼돌려지기를 기다리는 광부들이 아직도 꽤 있었다. 오키시마는 조장과 소조장에게 계책을 내려 빼돌려지는 광부가 움직이는 순간까지 잠자코 있으라고 했다(113-114). 이렇게 하여 오키시마와 조장들에 의해 장명찬이 붙잡혔다. "조장들에게는 그가 미울 수 밖에 없었다. 마지막 한 방울의 피와 땀까지 쥐어짜내기 위해 먹이고 입혀온 광부들이 빼돌려진다는 것은 주머니 속에 있는 것을 소매치기당하는 것보다도 훨씬 손해가 크다(117)."

오키시마가 장명찬을 때려 눕혔다. 가지가 오키시마를 말리고 첸에게 부상당한 장명찬을 채광소 진료소로 데려가게 했다. 첸은 장명찬이 자신의 연루 사실을 폭로할까봐 마음을 졸였는데, 장명찬이 다음과 같이 말했다. "걱정하지 마. 꼬마야. 입이 찢어져도 폭로하지는 않아." 다음에 이어지는 지문이다. "첸은 바로 마음이 놓였다. 그리고 이 순간은 이 악당이 누구보다도 착한 사람으로 보였다(120)." 이를 보면 장명찬이 후루야와 같은 악인으로는 기술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38]

첸은 가지가 장명찬을 만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후루야가 진료소에서 장명찬에 대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했으나, 가지는 장명찬이 채광소 사람이 아니어서 진료 절차가 까다로웠고, 노무계가 책임을 져야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진료소로 갔다. 가지는 진료소에서 장명찬이 후루야에게 무타한테 전보를 보내 오키시마를 혼내 줄 것을 부탁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다. 이에 가지는 후루야에게 "진료소에 있는 자네 동료를 본사 병원으로 보낼 절차를 밟아. 비용은 무타가 부담한다. 물론 자네가 내도 상관없어. 그 정도는 벌어놨을 테니까. 노무계에선 내지 않겠다"고 했다(117-124).

장명찬의 계획을 알고 있었던 후루야는 다시 첸을 협박하여 특수 광부의 탈출 계

38) 장명찬과 첸은 모두 '식민지 피해자'였다. 앞서 살펴본 카와무라의 용법대로라면 첸은 물론 '약한 피해자'였지만, 장명찬은 '강한/약한 피해자/가해자'로 규정될 수 있을 만큼 매우 복합적인 인물로 그려졌다. 장명찬이 피해자라고 해도 그것은 중국인에 의한 것은 아니었고, 중국인에 대해서는 가해자였던 것이 사실이지만, 스스로는 중국인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점에서(그것이 '2등 일본인'—중국인에 대해서— 또는 '친일'—일본인에 대해서— 행세를 하는 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도), 자신을 중국인에 대해서 피해자로 잘못 생각하였거나 그것을 중국인에 대한 가해 행위를 정당화하는 핑계로 삼았음을 알 수 있다. 소설 속의 장명찬이라는 인물이 흔히 재만 조선인을 지칭하면서 하는 '만주에서 개장수'했다고 하는 '자기 비하적인 표현'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는 앞으로 연구되어야 할 과제이다.

획을 계속 진행시켰다. 후루야는 이 사실을 소장에게 알리고, 함정에 빠져서 탈출하는 특수 광부들을 체포할 계획을 세웠다. 후루야는 첸에게 변전소 야근자 귀에게 가지의 말이라고 하고 전류를 끊게 했다. 그러나 "첸은 전류를 끊게 할 생각은 없었다. 마음은 짓물러 있었지만. 동포를 팔 결심은 서지 않았다." 특수 광부들이 탈출하기로 한 날 밤에 첸이 미리 철조망 쪽으로 가서 탈출 계획을 중지시키려고 했다. 그러나 첸은 바로 후루야에게 붙잡혔다. 후루야는 이미 비번인 현장 경비들을 출동시켜 철조망 주위에 배치해 놓고 있었다. 그날 밤 탈출을 시도하던 특수 광부 네 명이 철조망에서 감전사를 당하였다. 이 광경을 본 첸도 절망에 빠져 철조망에 몸을 던졌다(139-151).

전류가 멎고 새까맣게 그을린 다섯 구의 시체가 철조망에서 끌려나오는 현장에서 후루야가 오키시마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옆에 있던 가지는 "난 분명히 맹목적이었어. 하지만 내가 맹목적이었던 것은 첸을 신뢰한 것이 아니라 자네가 이토록 악의적으로 사건을 조작하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거야.…오늘부터 자네는 책상을 지문실로 옮기도록 해. 자네가 앞으로 취급하게 될 것은 만주인들의 지문계로서 만주인들의 손가락뿐이야. 노무 현장의 일에는 일체 관여하지 마"라고 했다(151-152).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후루야와 가지의 운명이 바뀌었다. 가지가 중국인 특수 광부들을 처형하는 현장에서 처형을 저지하다가 헌병대에 끌려갔으며, 고문을 당한 후에 군대에 소집을 당하게 되었는데, 후루야가 가지의 후임 자리를 꿰찼다. 같은 '불법'을 저질렀지만 조선인 장명찬과 일본인 후루야는 다른 조건 속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병든 어머니에게 밀가루를 먹이기 위해서 '불법'에 가담했던 중국인 노무계 직원 첸의 운명은 조선인 장명찬보다 더욱 비참했다.

장명찬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만주국에서의 일본인과 중국인 사이에 위치하는 조선인의 지위는 매우 불안정한 것이었다. 피지배 민족인 중국인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고, 지배 민족인 일본인의 수도 적지 않은 상황에서, 조선인이 소수민족 중간상인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은 제한되어 있었다. 소화제강소나 무순탄광에서 직영제를 실시하려고 했으나 어려웠던 것은 그 때문이었다. 일본인과는 달리 조선인이 중국인 노동자의 조장을 담당하기는 어려웠으며, 조선인 광산 노동자의 수가 적었으므로, 조선인 조장의 수도 적을 수 밖에 없었다. 그것이 조선인 광산 노동자의 주변에서 장명찬과 같은 '불법적인 중간상인'이 등장하는 조건이었다.

www.kci.go.kr

조선인이 불법적인 중간상인으로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일본인은 굳이 그것을 담당하려고 하지 않고, 중국인은 그것을 담당할 수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중국인 가운데서 일본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나, 일본인 가운데서 중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던 데 비해서 조선인은 일본어는 물론 장명찬과 같이 중국어도 유창하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었다. 물론 일본인이나 중국인 중에서도 중국어(오키시마와 같이)나 일본어를 유창하게 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그들은 중간상인이 될 필요가 없었거나 합법적인 중간상인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굳이 불법적인 중간상인이 될 필요가 없었다. 이것은 합법적인 중간상인이 될 수 있었던 조선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또한 중국인으로서는 조장과 같이 불법과 합법의 경계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조선인들에게는 그러한 기회가 더욱 제한되어 있었다.

V. 통계 자료에 나타나는 재만 조선인 광산 노동자

조선인 광산 노동자들은 무순시(곧, 무순탄광)와 안산시(곧 안산철광과 궁장령철광)에 집중되어 있었다. 1942년 말 두 도시의 전체 인구는 각각 277, 151명, 263, 488명으로 비슷했다. 만주국의 인구통계에서는 대분류로 만인, 일본인, 기타 외국인, 무국적자로 구분하고 다시 소분류에서 만인은 만한족, 몽고족, 회족, 기타로, 일본인은 내지인, 조선인, 기타(대만인일 것으로 추정됨)로 각각 구분하였다. 곧 조선인은 인구통계에서 대분류에서는 일본인 범주에 속하고, 다시 소분류에 의해서 구분되었다.

1942년 말(1943년 말)의 무순시와 안산시에서의 민족별 인구 수를 보면, 조선인, 일본인, 중국인(만한족)의 수가 무순시는 6, 223명(6, 095명), 41, 121명(44, 296명), 228, 589명(261, 835명)이었고, 안산시는 8, 856명(11, 788명), 53, 412명(60, 374명), 199, 999명(211, 635명)이었다.[39] 일본인과 조선인의 비율이 안산시가 더 높았으며, 일본

39) 滿洲帝國民政部, 1943,『滿洲人口統計(民族別)』, 42-45; 滿洲帝國警務總局, 1944,『主要都市市街地戶口統計表』, 20-22. 위 두 통계에서는 민족별 성(性)별 인구 통계가 포함되어 있었다. 1942년 말(1943년 말) 무순시와 안산시의 민족별 성비(여자 100명당 남자 비율)를 보면 조선인은 1.11(1.21), 1.56(1.69), 일본인은 1.20(1.27), 1.20(1.39), 중국인은 1.73(1.76), 1.55(1.51)이었다. 성비는 일본인은 무순시와 안산시가 거의 같았고(1943년 말 안산시의 성비가 더 커졌음), 조선인은 안산시에서, 중국인은 무순시에서 성비가 더 컸다. 안산시에서의 조선인과 중국인의 성비는 거의 같았다(1943년 말 조선인의 성비가 더 커졌음). 무순시에서의 조선인의 성비는 일본인보다 약간 더 적었다. 한편, 1934년 말(1935년 말) 무순 만철부속지와 안산만철부속지의 민족별 인구를 보면 조선인은 3, 801명(4, 597명), 618명(673명), 일본

인과 조선인의 두 도시의 비율 격차가 1943년에 더 커졌음(곧 무순시와 비교하여 안산시에 거주하는 조선인과 일본인의 수가 더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조선인이 안산시에 더 많이 거주한 것은 소화제강소가 무순탄광과 비교하여 인근 지역 출신자들이 더 많았던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고, [40] 이는 소화제강소가 산동성과 하북성 등 관내 출신자들이 더 많았던 무순탄광보다 노동 조건이 더 좋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안산시 거주 조선인은 다시 제철공장과 제강공장 노동자와 철광 노동자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이지만, 후자의 수가 더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만철의 통계자료는 1940년까지는 <만철통계년보>, 1941년에서 1944년까지는 <만철통계월보>, 만철무순탄광의 통계 자료는 <무순탄광통계년보>, 소화제강소의 통계 자료는 <종합통계기보(期報)>가 있다.[41] 소화제강소에 대한 통계 자료는 <만철노동사의 연구> 제8장(제7장은 무순탄광)에서 살펴볼 수 있다. 소화제강소는 만업(滿業)에 편입된 후에도 만철의 종업원 제도를 따랐다. 사원에는 참사, 부참사(이상 고급관리직), 직원, 준직원(이상 중급관리직과 기술자), 고원(雇員), 용원((傭員, 이상 제철공장의 노동자)이라는 직계가 있었다. 용원은 모두 중국인 노동자로서 1938년에 설치되어 1940년에 사원으로 편입되었다. '비사원'에는 고원보(雇員補, 1938년 이전의 직계로서 일부는 準雇員이라고 불렸음), 임시고원, 견습 등을 포함했다. 이들은 모두 일본인이었다. 고원보에는 조선인과 대만출신자도 포함되었다. 곧 조선인은 중국인과는 달리 용원이 아니라 고원보에서 직계가 시작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용원 이하의 직계로는 재적 인원인 시간급공(常傭方)과 성과급공(常傭夫)이 있고, 재적외 인원으로 광산(하청)공, 임시공(供給工), 일용공(日雇) 등이 있었는데, 이들은 모두 중국인이었다. 1938년 소화제강소의 민족별, 직책별 월 수입을 살펴보면, 일본인 고원은 95.54엔, 중국인 시간급공은 22.59엔, 성과급공은 25.46엔, 하청광산공은

인(일본내지인, 내지인)은 20, 214명(23, 399명), 9, 802명(65, 807명), 중국인(본국인, 만인)은 55, 370명(72, 612명), 14, 072명(21, 607명)이었다. 1934년 말(1935년 말) 무순만철부속지와 안산만철부속지의 민족별 성비를 보면 조선인은 1.10(1.16), 1.30(1.20), 일본인은 1.14(1.14), 1.16(1.17), 중국인은 2.98(2.83), 2.81(2.99)이었다. 滿洲帝國民政部, 1936,『康德二年 第1次 統計年報』, 23; 國務院總務廳統計處, 1937,『康德三年 滿洲帝國現住戶口統計』, 25. 1934년 말(1935년 말) 무순현의 조선인은 6, 235명(9, 170명), 요양(遼陽)현의 조선인은 434명(1, 141명), 1935년 말 요양만철부속지의 조선인은 215명이었다. 滿洲帝國民政部, 위의 책, 9; 國務院總務廳統計處, 위의 책, 19, 25. 1937년에 만철부속지가 철폐되면서 무순과 안산에 시제(市制, 곧 현과 만철부속지를 통합)가 실시되었다. 塚瀨進, 1993,『中國近代東北經濟史研究: 鐵道敷設と中國東北經濟の變化』. 東方書店, 146.

40) 소화제강소의 현지(地元) 모집에 대해서는 松村高夫·江田憲治·解学詩, 앞의 책, 343-354을 참고하라.

41) 南滿洲鐵道株式會社,『統計年報』; 撫順炭鑛,『統計月報』; 昭和製鋼所,『綜合統計期報』.

www.kci.go.kr

13.49엔이었다(하청광산공은 일급에서 환산한 것이다).[42]

<만철통계년보>의 통계 자료에서 조선인은 1938년까지는 일본인에 포함되었으나, 그 이후에는 러시아인 등과 마찬가지로 만주국인에 포함되었다.[43] 조선인이 일본인에 속하는가 혹은 만주국인에 속하는가 하는 것은 조선인이 처우에서 큰 차이를 낳았다. 왜냐하면 다양한 복지 대우가 사원인가 비사원인가와 함께 일본인인가 만주국인인가에 따라서 달랐기 때문이다. 사원은 재근수당, 가족수당, 사원주택, 공제제도, 의료시설, 소비조합 등 각종 사원복지제도를 제공받았는데, 그 혜택은 다시 일본인과 만주국인에게 차별적으로 적용되었다. 그러나 갑자기 통계 자료의 분류 기준이 바뀌어서 사원 제도에서의 조선인의 지위가 하락하였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통계 자료의 분류 기준의 변화가 사원 제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은 통계 자료에서는 확인할 수 없다.

재만 조선인 광산 노동자에 관한 통계 자료로서는 만주노공협회(滿洲勞工協會)가 1938년 9월말에서 1939년 8월말까지 조사하여 1940년에 출판한 <만주공장광산노동조사서(滿洲工場鑛山勞動調査書)>가 있다. 이 조사서는 공장의 부와 광산의 부로 구분되어 있으며, 지방별로는 관동주, 만주국으로 구분되어 있고, 만주국은 다시 각 성별로 구분되어 있다.[44] 만주노공협회가 1940년에 발행한 통계 자료에서 조선인 광산 노동자의 실상을 파악할 수 있다. 만주노공협회의 통계는 만주국의 인구통계와 마찬가지로, 그리고 만철의 통계에서와는 달리, 조선인을 별도로 구분하였다.

1939년 현재 만주에 있는 광산과 광산 노동자의 총수는 92개(354), 223, 913명(383)이었고(괄호안은 1935년을 100으로 한 지수), 지역별로는 만주국이 85개, 221, 818명이며, 봉천성이 31개(33.7퍼센트), 143, 150명(64.1퍼센트)였다. 광산당 평균 노동자의 수는 총수가 2, 434명이었는데, 봉천성은 4, 618명으로 봉천성의 광산이 상대적으로 규모가 컸음을 알 수 있다. 봉천성에서는 1만 명 이상 광산이 3개가 있었고, 5천명-1만 명이 2개가 있었다. 봉천성 이외 지역에서 1만 명 이상 광산이 있는 곳은

42) 松村高夫·江田憲治·解学詩, 앞의 책. 361.

43) 松村高夫·江田憲治·解学詩, 위의 책. 126.

44) 민족별 공장 노동자의 수는 일본인, 조선인, 중국인이 전체로는 16, 679명, 2, 634명, 161, 485명이었고, 만주국은 10, 741명, 2, 564명, 116, 417명이었고, 봉천성은 9, 940명, 906명, 98, 890명이었다. 일본인과 중국인이 봉천성에 집중되어 있었던 반면에 조선인은 그렇지 않았다. 이것은 만주에서 가장 중공업이 발달했던 봉천성 지역에서의 공장 노동자의 비중이 조선인 노동자의 경우에 상대적으로 낮았음을 뜻한다. 관동주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일본인 공장 노동자의 수가 가장 많았고(5, 938명으로 3분의 1이 넘는다), 중국인 노동자의 수도 만주국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반면에(45, 068명으로 4분의 1을 넘는다), 조선인 노동자의 수는 70명에 불과하였다.

www.kci.go.kr

금주성으로서 2개가 있었다. 그리고 5천명-1만 명에 달하는 광산은 삼강성에 1개가 있었다.

산업별로는 금속광업(64, 560명)과 비금속광업(159, 353명)으로 구분하고, 다시 금속광업을 금광업, 철광업(50, 730명), 동광업, 기타로, 비금속광업을 석탄광업(145, 714명), 토석채취업, 석회광업, 기타로 구분하였는데(괄호안은 노동자의 수), 광산 노동자는 대부분이 석탄광업과 철광업에 집중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45] 노동자 수가 1만 명 이상에 달하는 광산은 금속광업에서 1개, 비금속광업에서 4개가 있었고, 5천명-1만 명에 달하는 광산은 금속광업이 1개, 비금속광업이 2개가 있었다.[46]

민족별 광산 노동자의 수를 보면 일본인, 조선인, 중국인(滿支人)이 총수에서는 220, 744명, 1, 165명, 1, 980명이었고, 석탄광업에서는 105명(9.0퍼센트), 433명(21.9퍼센트), 145, 152명(65.8퍼센트)이었고, 철광업에서는 984명(84.5퍼센트), 382명(19.3퍼센트), 49, 364명(22.4퍼센트)이었다(괄호안은 전체 광산 노동자 수 중에서의 산업별 비율). 일본인 광산 노동자는 절대 다수가 철광업에, 중국인 광산 노동자는 다수가 석탄광업에 종사하였던 데 반해서, 조선인 광산 노동자는 금광업(35.2퍼센트)과 금속광업 기타(22.1퍼센트)에 가장 많은 노동자가 종사했다. 궁장령 채광소를 포함하는 철광업 전체에서 조선인은 382명이, 무순탄광을 포함하는 석탄광업 전체에서 조선인은 433명 밖에 종사하지 않았다.

성별 광산 노동자의 수를 민족별로 살펴보면 일본인은 남자만 있었고, 조선인은 남자가 94.2퍼센트, 여자가 5.8퍼센트(115명)을 차지하였고, 중국인은 남자가 99.5퍼센트 여자가 0.5퍼센트(1, 143명)을 차지하여, 조선인 광산 노동자의 경우에 여자 노동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26). 미성년 광산 노동자의 비율을 보면 일본인은 7.4퍼센트, 조선인은 15.3퍼센트, 중국인은 10.8퍼센트로서 조선인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다시 조선인과 중국인의 성별 미성년 노동자의 비율을 보면 조선인은 남자가 15.4퍼센트, 여자가 13.0퍼센트였던 반면에 중국인은 남자가 10.4퍼센트, 여자가 81.3퍼센트로서 여자의 경우에 미성년자의 비율이 훨씬 더 높았다.

조선인 노동자는 전체로서는 미성년 노동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지만, 미성년 여

45) 滿洲勞工協會 編, 1940, 『康德六年 滿洲工場鑛山勞働調査書 Ⅲ』, 新京: 嚴松堂書店, 23. 이하 출처 인용 없이 면수를 표기한다.

46) 추정해 보자면 1만 명 이상의 금속광업이 안산철광(안산 철광과 궁장령 철광을 합한 경우임)이고, 1만 명 이상의 비금속광업이 무순탄광, 본계호(本溪湖)탄광, 부신(阜新)탄광, 북표(北票)탄광 등이고, 5천명-1만 명에 달하는 광산이 본계호철광, 학강(鶴岡)탄광 등이었을 것이다.

자 노동자의 비율은 중국인에 비해서 훨씬 더 낮았음을 알 수 있다.[47] 일본인의 경우에도 미성년자의 비율이 7.4퍼센트로서 중국인과 그다지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이 주목된다. 이것을 보면 일본 노동자의 경우에도 미성년 노동자가 적지 않은 비율을 차지할 만큼 하층 노동자 가구가 있었으며, 조선인 경우에 미성년 노동자의 비율이 가장 높아서 하층 노동자 가구의 비율이 높은 것이 주목된다.

민족별 근속년수를 보면 일본인이 가장 길었고, 다음이 중국인 노동자이며, 조선인 노동자(특히 여성 노동자)가 근속년수가 가장 짧았다. 근속 년수가 3년 미만자의 비율이 일본인은 85.1퍼센트(석탄광업은 100퍼센트), 조선인은 98.2퍼센트(철광업은 100퍼센트), 중국인(만한인)은 86.2퍼센트(철광업은 94.0퍼센트)에 달하였다(28-30). 이것을 보면 일본인은 철광업에서는 근속 년수가 더 길었고, 조선인과 중국인은 철광업에서 근속 년수가 더 짧았음을 알 수 있다. 조선인의 근속 년수가 가장 짧은 것은 후에 보겠지만 조선인 노동자의 노동 이동율이 가장 높았기 때문이다.

일본인, 조선인, 중국인의 노동시간별 비율을 보면 10시간 이내가 79.7퍼센트, 66.5퍼센트, 65.1퍼센트였고, 10시간 이상은 20.3퍼센트, 33.5퍼센트, 36.2퍼센트였다(30). 그러나 다시 시간별 내역을 보면 10시간은 일본인이 50.3퍼센트로 가장 많았고, 조선인은 26.5퍼센트였고, 중국인은 36.2퍼센트였고, 13시간 이상은 일본인이 18.8퍼센트, 조선인이 11.4퍼센트, 중국인이 16.6퍼센트였다. 곧 1일 평균 노동시간에서는 민족별 격차가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48]

조선인과 중국인 남자 광산 노동자의 임금 차이를 보면 금속광업에서는 1.38엔과 0.85엔이었던 반면에 비금속광업에서는 0.93엔과 1.02엔이었다. 조선인 노동자가 많았던 금속광업의 금광업(1.30엔과 0.90엔), 철광업(1.38엔과 0.85엔), 기타(1.60엔과 0.63엔)에서 모두 조선인 노동자의 임금이 중국인 노동자에 비해서 높았던 반면에 광산 노동자 중에서 중국인 노동자의 비율이 특히 많았던 석탄광업에서는 조선인과 중국인의 임금이 각각 0.90엔과 1.02엔으로 중국인 노동자가 더 높았다.[49]

---

47) 연령별 광산 노동자의 수를 보면 14세 이하가 1, 573명(전체의 0.8퍼센트) 중 여자가 456명으로 여성 총수의 35.9퍼센트, 15-20세가 18, 326명(전체의 9.8퍼센트) 중 여자가 492명으로 여성 총수의 38.8퍼센트를 차지하였다. 전체 노동자의 연령별 비율을 살펴보면 26-30세(23.4퍼센트), 21-25세(22.0퍼센트), 31-35세(18.0퍼센트), 36-40세(13.2퍼센트)의 순서였고, 15-20세와 41-45세가 비율이 같았다.

48) 휴게시간을 보면 철광업은 30분 이내가 73.7퍼센트이고, 1시간 이내가 16.1퍼센트, 1시간 이상이 10.2퍼센트였다. 석탄광업은 30분 이내가 12.5퍼센트, 1시간 이내가 69.0퍼센트, 1시간 이상이 18.5퍼센트였다(31).

49) 일본인, 조선인, 중국인 공장 노동자의 1일 평균 실수령 임금을 보면, 남자는 3.78엔, 1.52엔. 1.09엔이었고, 여자는 1.82엔, 0.76엔, 0.53엔이었다. 조선인 노동자의 경우 일본인과의 격차가 중국인과의 격차

민족별 이동율(채용인원 100명에 대한 해고인원의 비율)을 보면 조선인이 75명, 일본인이 27명, 중국인이 58명으로, 조선인이 가장 높았다. 근속년수별 해고노동자의 비율을 보면 6개월 미만자가 일본인 32.9퍼센트, 조선인 64.0퍼센트, 중국인 65.5퍼센트, 6개월 이상 1년 미만자가 일본인 23.8퍼센트, 조선인 25.7퍼센트, 중국인 10.1퍼센트였고, 1년 이상 2년 미만자는 일본인이 32.3퍼센트, 조선인이 9.4퍼센트, 중국인이 10.1퍼센트였다(32-33). 조선인이 해고율이 가장 높았던 것은 중국인에 비해서 6개월 이상 1년 미만자의 해고율이 높았기 때문이었다.

Ⅵ. 구술 자료에 나타나는 재만 조선인 '중간 상인'과 광산 노동자

1950년대 이후에 중국 정부가 만주의 광산에서 발생한 '만인갱(萬人坑)' 조사를 대대적으로 벌였다.[50] 요녕성(1943년 당시는 봉천성)의 만인갱 중에는 궁장령철광도 있었다. 조사 결과 일부 중국인 '큰 조장(大把頭)'은 재판을 받았으며, 궁장령철과의 만인갱이 있었던 삼도구(三道溝)에는 '계급교육전람관'이 설립되었다.[51] 구술 자료는 재판의 증언 자료로서, 그리고 전람관에 전시할 자료로서 수집되었다. 구술 자료는 빠른 경우는 1950년대 초반에, 늦은 경우는 1970년대 초반에 걸쳐 수집되었다.[52]

일부 구술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궁장령철광에서의 중국인 광산 노동자들의

보다 더 컸다. 지방별 내역을 보면, 일본인, 조선인, 중국인 공장 노동자는 남자는 관동주가 3.78엔, 2.24엔, 1.02엔이었고, 만주국이 3.78엔, 1.49엔, 1.13엔이었다. 이를 보면 관동주의 경우에 조선인이 그 수는 적었지만 '소수민족 중간상인'에 더 가까운 위치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관동주의 경우에 조선인 공장 노동자들이 상대적으로 대기업이 많은 대련시에 집중되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여자의 경우에는 관동주는 1.60엔, 0.64엔, 0.42엔, 만주국은 1.84엔, 0.76엔, 0.58엔으로 조선인 여성은 만주국에서 상대적으로 임금이 더 높았으며, 두 지역 간의 중국인 노동자와의 임금 격차가 거의 차이가 없었다(90-91).

50) '만인갱'은 일본인에 의해서 대량으로 학살당한 중국인의 무덤을 지칭하는데, 사망자의 수가 아주 많았다고 해서 만인갱 또는 천인갱이라고 한다. 만인갱 중에서 중국인 광산 노동자 3, 000명이 학살당한 무순탄광의 평정산(平頂山)이 가장 유명하다. 궁장령철광 만인갱은 1933년 5월에서 1945년 8월까지의 기간에 12, 000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했다. 사망자 중 조선인이 존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무순탄광 만인갱은 사망자 수가 25-30만 명에 달하며, 조선인 사망자도 있었다. 최승일, 2009, 「중국지역 만인갱 분포 상황과 한인 희생」, 『한국학논총』 32, 389-390.

51) 李秉剛 主編. 2004. 『日本侵華時期遼寧萬人坑調查』. 社會科學文獻出版社. 491. 이하 출처 인용 없이 면수만 표기한다.

52) 가장 늦은 시기에 작성된 자료는 政協鞍山市委員會文史資料研究委員會가 1983년에 작성한 자료였다.

www.kci.go.kr

상황은 다음과 같았다. “매월 20위안을 벌었는데 ‘조장비(원문은 鬼子費)’로 5-6위안을 공제하고, 매년 3-4개월마다 ‘노군(老君, 도교의 신)’을 공경하는 비용으로 2위안 정도를 공제했다. 거두어간 돈은 조장과 감독(領班)이 먹고 마시는데 사용했다. 매월 또한 10위안의 식비를 공제하였으며, 장화를 사는 데만 2위안이 들었다. 이렇게 하여 한달 임금이 5-6위안만 남았다(461).”

만인갱에 묻힌 사람들은 중국인 광산 노동자들이었으며, 그 가운데서도 포로 등으로 잡혀 온 ‘보도노동자(輔導工)’가 최하층을 이루고 있었으므로, 이들에 관한 구술 자료가 중심을 이루고 있었다.[53] 이들은 1943년에 설립된 궁장령 교정보도원에 수용되었던 노동자들로서, 이전의 특수 노동자들이 확대된 것이었다. 따라서 구술 자료는 <인간의 조건>에서 등장하는 특수 광부들과 비교해 볼 수 있다. 지금 이 부분을 자세하게 검토할 수는 없지만 <인간의 조건>에 나오는 특수 광부들은 보도노동자와는 달랐다.[54] 보도 노동자들은 채광소의 노무계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교정보도원의 원장 이하 직원들이 관리하였다. 원장은 일본인이었고, 간부(官佐)는 일본인과 중국인이 있었으며, 보도주임들과 보도사(輔導士)들은 중국인이었다.

궁장령철광에 관한 중국인들의 구술 자료에서는 조선인이 딱 두 번 등장하였다. 한 사람은 교정보도원의 ‘면회 담당 직원’이었고, 또 다른 사람은 ‘보도노동자’였다. 약간 길지만 조선인 직원이 등장하는 구술 자료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이 구술 자료는 요녕성 수중현(綏中縣, 현재는 葫芦岛市에 속함)에 거주하던 사람으로서 궁장령 교정보도원에 잡혀가서 보도노동자가 된 동생을 구출하러 갔다가 보도원의 직원들에게 착취당한 일을 고발하는 내용이었다.

“1944년 봄에 동생이 궁장령 교정보도원에 잡혀 갔다. 7-8천근 양식을 팔아서 면양권(綿羊券, 만주국 화폐)을 가지고 안평(安平)에서 궁장령으로 가는 작은 기차를 타고 가다가, 궁장령 교정보도원 건물을 보았다. 접견하는 곳에 갔더니 17-18세로 보이는 ‘조선인(강조는 필자)’이 담당하고 있었다. 면회 후에 여관인 ‘사민점(四民店)’에서 투숙했다(숙박비는 3角이었다).[55] 궁장령에는 사해관(四海館)과 사민점의 두 개 여관이

53) 특수노동자는 무순 탄광의 경우에는 1940년 12월부터 공급되었다. 화북신민회(華北新民會)가 1941년 9월 화북에 <특수인의 노동알선에 관한 건>을 제정하였다. 1942년 6월에 특수 노동자를 포로는 ‘보도(輔導) 노동자’, 주민은 ‘보호 노동자’로 구분하였다. 무순 탄광에서는 보도 노동자가 1943년 3월부터 공급되었다. 蘇崇民, 앞의 책, 640-641.

54) 특수노동자가 1941-1943년까지 무순탄광, 본계호탄광제철회사, 소화제강소에 6만 명, 그리고 관동군에 4만 명이 사역되고 있었다. 平井廣一, 2003, 「書評: 滿鐵勞動史の研究」, 『三田學會雜誌』 95卷 4號, 200-201.

www.kci.go.kr

있었는데, 사해관은 역에서 내리면 바로 있었지만, 사민점은 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다. 그러나 사민점은 채광소의 조장과 교정보도원 직원이 공동으로 출자해서 운영하는 곳이어서 보도노동자들을 면회 온 사람들은 사민점에 묵는 것이 면회하는 데 유리했다.[56] 보도사와 주임보도사가 자주 들렀기 때문에 이들에게 뇌물을 주고 '병 보석(保外就醫)'을 신청하려고 했다. 직원들은 면회 온 가족들에게 아편을 판매하는 등 가족으로부터 돈을 빼앗기도 하고, 여성의 경우에는 강간을 하는 일도 있었다(476)."

위 구술자는 사민점에서 수중현 관방자(寬幇子)에 사는 대금업자(財主) 파(巴)모를 만났는데, 그는 관방자 일대에서 사람들을 잡아와서 인신매매(續人交易)를 했다. 그가 구술자에게 자신이 의무과의 사람과 이모 주임(식사 담당 주임보도사)을 아는데 다리를 놓아 주겠다고 했다. 구술자가 파모에게 18-19석의 양식을 주었는데, 그는 이모와 나눌 것이라고 했다. "이후 매일 담배와 전병 등을 사서 접견을 관할하는 '조선인'에게 보내고, 다시 그를 통해서 보도경찰(輔導警)들이 먹게 해주었다." 마침 이모와 의무주임 대(戴)모가 돈을 받고 20여명을 석방해 준 것이 일본인에게 발각되어 도망을 가게 되어, [57] 동생을 석방시키지 못한 채 구술자가 고향에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마침 동생이 병실(病護室)에 있었다. 구술자는 다행히 다른 보도노동자 가족의 도움으로 사민점에 갈 수 있었고, 전후 30여석에 달하는 양식을 판 돈을 쓰고 나서야 동생을 중환자(重病戶)라고 하고 병 보석으로 구출할 수 있었다(476-477).

다음으로 구술 자료에서 등장하는 조선인 보도노동자에 대해서 살펴보자. 그가 어떤 연유로 보도노동자가 되었는지 확인이 되지 않는다. 보도노동자는 특수노동자와 같이 포로였거나 적성 마을의 주민일 수도 있지만, 다양한 범죄 경력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58] 면회 담당 직원의 경우는 조선인이었다는 사실만 확인되었던 반면에, 보도노동자의 경우에는 긍정적인 인물로서 자세하게 기술되었다.

55) 사민점은 소가보자(蘇家堡子)의 작은 하천 변에 있었다. 하천의 북쪽에 교정보도원이 있었고, 하천의 남쪽에는 광산 노동자의 가족 숙사가 있었다. 진가보자(陳家堡子)에는 '위안소(妓院)'가 있었다(478).

56) 사민점은 광산 대조장 장집무(張執武)와 궁장령 보도원 주임보도사 파언명(巴言明)이 공동으로 출자한 불법적인 여관(黑店)이었다. 면회는 일반적으로 10분에서 15분 밖에 걸리지 않았다(476, 489).

57) 또 다른 구술 자료에 같은 사실이 나온다. "의무과의 병실에는 가장 많을 때는 200여명이 입원해 있었다. 보도관좌 이(李)모와 주임보도사 대(戴)모가 공모해서 팔아넘겼다. 돈을 주는 사람에게는 병을 핑계로 석방했다. 주임보도사 오(吳)모가 이러한 사실을 부원장 후루카와(古川)에게 보고하여, 1945년 설 하루 전날(곧 섣달 그믐)에 도망을 쳤다(499)."

58) 조선인들도 중국인들과 마찬가지로 소만 국경의 요새 구축 작업 등에 동원되었다(方美花. 2007).

www.kci.go.kr

"광복되기 직전에 보도노동자 50여명이 도망을 쳤는데, 나중에 5-6명이 총에 맞아 잡혀 왔다. 한명은 복부에 총을 맞았는데 다음날 시체가 공지에 놓여 있었다. 일본인 소장(부소장-필자) 후루카와(谷川)가 조선인 한명을 직접 감방에 데리고 와서 직접 심문했다. 조선인은 소장이 감히 또 탈출하게느냐고 묻자, 탈출하겠다고 늠름하게 말하고, 소장을 향해 손으로 총을 쏘는 시늉을 하면서 입으로 총성을 내자 소장이 놀라서 뒤로 한걸음 물러섰다. 소장은 조선인이 계속 꾸짖자 화가 나서 총을 꺼내 조선인을 세 번 쏘아서 죽음에 이르게 했다.[59] 광복 후 일본인들은 도망을 갔고, 중국인 간수들은 노동자들에 의해 포위당하였다(496)."

만인갱 조사를 위한 구술 자료는 일본의 전쟁 범죄에 관한 증언 자료로서 수집되었다는 정치적 맥락이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비록 그것이 사실적인 자료라고 해도 일부 정치적 맥락에서 벗어나는 자료는 누락될 수 있었다. 곧 만인갱 조사에서는 일본인과 중국인과의 대립이 축을 이루고 있었으며, 중국인 내부의 계급 관계로서, 일본인의 끄나풀이었던 중국인 조장('把頭'라고 불렸던 하청조의 조장)을 찾아내서 처벌할 필요가 있었던 반면에, 이제는 중국의 조선족이 된 조선인 조장 등이 굳이 부각될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구술 자료에서 조선인 조장이나 조선인 불법적인 중간 상인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정치적 맥락 때문일지 모른다.

Ⅶ. 결론

미국 학계에서는 조선인이 만주국에서 소수민족 중간상인이었다는 논급이 있다. 만주국에서 조선인은 "일본인 영주와 중국인 농민 사이에서 중간적 위치를 차지하는 '효과적인 행위자'였다는 것이다.[60] 그러나 한국 학계에서는 봉천시에서의 조선인의 지위를 살펴보면서 조선인의 '2등공민론'을 부정하는 입장에 있다.[61] 한석정은

59) 1943년 11월에 안산보도원의 부원장인 후루카와(古川)가 궁장령철광에 와서 안산보도원의 분원으로 궁장령보도원의 설립을 주도했다.

60) Jones, F. C., 1949, *Manchuria since 1931,* Oxford University Press; Cumings, Bruce, 1984, "The Origins and Development of the Northeastern Asia Political Economy",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38, No. 1, 13; Han, Suk-jung, 2005, "From Pussan to Fentian: The Borderline Between Korea and Manchukuo in the 1930s", *East Asian History,* Vol. 30, 102.

61) 윤휘탁, 2003,「만주국 상공업계의 민족 구성」,『민족운동사연구』36; 尹辉铎, 2004,「伪满洲国劳动界的民族结构和民族间的位置关系」,『抗日战争研究』1.

www.kci.go.kr

1939년 4월 12일자 <만주국정부공보(公報)>에서 조선인과 만주인 노동자의 일급을 비교하는 통계를 제시했는데, 남자 노동자의 경우에는 1.37위안 대 0.97위안이었고, 여자 노동자의 경우에는 0.59위안 대 0.52위안으로 여성 노동자의 경우에는 거의 차이가 없었으나 남성 노동자의 경우에는 조선인 노동자가 만주인 노동자에 비해서 일급이 40퍼센트 정도 더 높았지만, [62] 1940년 3월의 자료에서 쌀 배급이 일본인에게만 지급된 예를 보면, 만주국의 마지막 단계에서 조선인은 대체로 중국인과 같은 대우를 받은 것으로 보았다. "조선인은 만주국에서 '중간상인(강조는 필자)'이 아니었다. 적어도 만주국의 '주권'으로부터 파생된 공식적 관계 때문에 우선권은 원칙적으로 (중국인) 시민들에게 주어졌다."[63]

<인간의 조건>에 등장하는 조선인 하청 노동자가 첸과 같은 중국인 사원과 마찬가지로 수와 콩깻묵을 배급받았는지는 확인하지 못하지만, 만주국에서의 민족별 차별이 조선인과 중국인간이 아니라, 일본인과 다른 민족 집단간의 차별로서 나타났음은 명백하다. 그것이 앞서 본대로 1937년 치외법권 철폐를 계기로 하여 <만철통계년보>의 통계 자료에서 조선인이 1938년까지는 일본인에 포함되었다가 그 이후부터는 만주인에 포함되게 되는 배경일 것이다. 소설 <인간의 조건>은 조선인이 일본인과 중국인의 사이에서 한편으로는 '(불법적인) 중간상인'으로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청 노동자'로서, 이중적으로 존재했음을 보여준다.

소설 <인간의 조건>에서는 조선인 장명찬을 부정적으로만 기술하지는 않았다. 그도 식민지 피해자의 한 사람이었다. 소설에서는 장명찬의 목소리를 다음과 같이 드러낸다. 앞서 진동푸와의 대화에서 중국인 첸이 "난 조선인이 아니야. 돈 때문에 배신할 수는 없어"라고 하는 말을 장명찬이 옆방에서 듣고 하는 독백 내용이다 (317-318). "어쨌든 난 조선인이다. 일본인에게 개처럼 취급당하고 있는 조선인이다. 너희 중국 놈들한테는 신의를 저버리는 인면수심으로 여겨지고 있는 조선인 떠돌이다. 좋다. 네놈이 생각하는 대로 똑 같이 해주마."

다음에 이어지는 지문은 장명찬의 '불법'이 조선인의 운명에서 비롯된 것으로 묘사하였다. "장명찬은 이때 자신을 '떠돌이(강조—필자)'로 만들어버린 비정한 운명을 증오심 속에서 되새겼다. 수많은 조선인이 그 운명을 짊어져야 했다. 그것은 일본이 조선을 통치하기 시작한 먼 옛날부터 업병(業病)의 독소처럼 몸속에 스며들어 있

62) Han, 앞의 논문, 102.
63) Han, 위의 논문, 105.

www.kci.go.kr

었다. 어떻게 해볼 방도도 없이 밀어닥치는 운명의 마수에서 도망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 살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해야 한다. 집도 없고, 먹을 것과 입을 것도 없는 인간에게는 예절 같은 건 확실히 쓸모없는 물건이다. 똑같이 억압받는 민족이지만 토착 만주인들은 그것을 경멸한다."

이 글에서는 소설 <인간의 조건>에 나타나는 '불법적인 조선인 소수민족 중간상인'의 상을 통해서, 그리고 구술 자료에서 나타나는 '합법적인 조선인 중간상인'의 상과 또한 '보도 노동자'의 상 등을 살펴봄으로써, 만주국의 조선인이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었음을 강조하고자 했다. 사실 만주국이라는 '주권' 국가에서, 일본의 식민지 피지배 민족인 조선인이 중국인과 유사한 지위를 차지하는 것 자체가 중국인으로서는 차별로 여길 수 있었을 것이다. 만주국 내 조선인의 지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중국인, 일본인, 조선인들의 주관적인 평가와 통계 자료 등과 같은 객관적인 평가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으며, 문학, 구술 자료, 통계 자료와 같은 다양한 텍스트에서 나타나는 재만 조선인 광산 노동자의 다양한 양상과 다양한 맥락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것(특별히 문학과 사실과의 관계에 주목하는 것)이 재만 조선인의 실상을 아는 데 도움이 됨을 알 수 있었다. 더 자세한 분석은 추후의 과제로 삼고 싶다.

www.kci.go.kr

참고문헌

고미카와 준페이, 김대환 옮김, 2013a, 『인간의 조건 1: 두 갈래의 미래』, 잇북
_____, 김대환 옮김, 2013b, 『인간의 조건 2: 강요된 선택』, 잇북
김창호, 2016, 「푸순 탄광과 한중 소설」, 『만주연구』 22
남춘호, 2005, 「1960-70년대 태백지역의 탄광산업의 이중구조와 노동자 상태」, 『지역사회연구』 13(3)
동락헌, 「인간의 조건…고미카와 준페이의 자전적 소설을 읽고」, 2013. 10. 21. (https://m.blog.naver.com/vvvpkk/30178023901)
유수정, 2009, 「두 개의 '합숙소의 밤'과 만주」, 『만주연구』 9
윤휘탁, 2003, 「만주국 상공업계의 민족 구성」, 『민족운동사연구』 36
_____, 2013, 「제10장 만주국 노동계의 민족 구성과 민족 위상」, 『만주국: 식민지적 상상이 잉태한 복합민족국가』. 웅진북센
_____, 2014, 「중일전쟁 시기 일본의 대동탄광 운영실태: 대동탄광 광부 출신들의 구술 내용을 중심으로」, 『중국근현대사연구』 64
_____, 2015, 「침략·수탈·저항·생존의 力學關係: 중일전쟁 시기 중국인 광부들의 생존 몸부림과 日·中 양국군의 동태」, 『중국사연구』 98
이동진, 2005, 「민족·지역·섹슈얼리티: 만주국 조선인 '성매매 종사자'를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28(3)
_____, 2017, 「김시종과 오사카 서클 시지 <진달래> 1: 정치와 시 사이」, 『사회와 역사』 116
_____, 2019, 「'방법론적 지역주의'와 만주연구의 과제: '만주국' 이민 연구의 동향을 중심으로」, 『만주연구』 28
이북명·한설야·김남천 외, 1995, 안승현 엮음, 『일제강점기(1933-1938) 한국노동소설 전집 Ⅲ』, 보고사
이행선·양아람, 2017, 「1960년대 초중반 미·일 베스트셀러 전쟁문학의 수용과 월경하는 전쟁 기억, 재난·휴머니즘과 전쟁책임 노먼 메일러 <나자와 사자>와 고미카와 준페이 <인간의 조건>」, 『기억과 전망』 36
정안기, 2015, 「1930년대의 재만 조선인, 이등국민론에 대한 비판적 성찰」, 『동북아역사논총』 48
최승일, 2009, 「중국지역 만인갱 분포 상황과 한인 희생」, 『한국학논총』 32
한설야, 1995, 「합숙소의 밤」, 이북명·한설야·김남천 외, 안승현 엮음, 『일제강점기(1933-1938) 한국노동소설 전집 Ⅲ』, 보고사

<中共東北地方組織的活動概述>編寫組, 1994, 『中共東北地方組織的活動概述』, 黑龍江人民出版社
李廷江·庚欣, 1992, 『學問·信仰與人生: 隅谷三喜男傳』, 中國社會科學出版社

www.kci.go.kr

方美花, 2007,「日帝强征朝鮮劳工与东北军事工程」, 延邊大學碩士 論文
范慶超, 2013,『抗戰時期東北作家研究 1931-1945』, 中國社會科學出版社
蘇崇民, 1990,『滿鐵史』, 中華書局
王中忱,「葉榮鐘與矢內原忠雄: 在殖民批判知識譜繫上的考察」,『保馬』, 2017年 11月 17日. (https://www.luoow.com/dc_hk/103758662)
王向遠, 2005,『'筆部隊'和侵華戰爭: 對日本侵華文學的研究與批判』, 昆崙出版社
尹輝铎, 2004,「伪满洲国劳动界的民族结构和民族间的位置关系」,『抗日战争研究』1
李秉剛 主編, 2004,『日本侵華時期遼寧萬人坑調查』, 社會科學文獻出版社
_____, 2005,『萬人坑: 千萬冤魂在呼喚』, 中華書局
程維榮, 2008,『近代東北鐵路附屬地』, 上海社會科學出版社
曹洪濤劉金聲, 1998,『中國近現代城市的發展』, 中國城市出版社
智喜君 主編, 1994,『鞍山城市史』, 社會科學文獻出版社
焦潤明 等, 2004,『近代東北社會諸問題研究』, 中國社會科學出版社

<滿洲開發四十年史>刊行會, 1964,『滿洲開發四十年史 補卷』
高橋啓太, 2020,「五味川純平'人間の條件'に関する序論的考察」,『花園大学文学部研究紀要』52
國務院總務廳統計處 編, 1937,『康德三年 滿洲帝國現住戶口統計』
南滿洲鐵道株式會社,『統計年報』
滿洲勞工協會 編, 1940,『康德六年 滿洲工場鑛山勞働調查書 Ⅲ』, 新京: 嚴松堂書店(滿鐵資料館 DB.030.33; 近代日本对华调查档案资料丛刊：第二辑经济调查 第49册)
滿洲帝國警務總局, 1944,『主要都市市街地戶口統計表』
滿洲帝國民政部 編, 1936,『康德二年 第1次 統計年報』
_____, 1943,『滿洲人口統計(民族別)(1942年)』
満州製鉄鉄友会, 1957,『鉄都鞍山の回顧』, 文生書院
満州炭鉱株式会社労務部労務課 編, 1942,『炭鉱労働者ノ疾病調査報告』
撫順炭鑛,『統計月報』.
朴裕河, 2016,『引揚げ文学論序説: 新たなポストコロニアルへ』, 人文書院
成田龍一, 2010,『'戦争経験'の戦後史: 語られた体験/証言/記憶』, 岩波書店
小宮山量平, 2005,「五味川純平の魅力」, 五味川純平,『人間の條件』, 岩派書店
昭和製鋼所, 1939,「株式會社昭和製鋼所現況」,『日本鑛業會誌』55卷 654號
昭和製鋼所,『綜合統計期報』
松村高夫, 2000,「15年戦争期における撫順炭鉱の労働史(上)」,『三田學會雜誌』93卷 2号
_____, 2007,『日本帝国主義下の植民地労働史』, 不二出版
松村高夫·江田憲治·解学詩, 2002,『滿鐵勞動史の研究』, 經濟評論社
水谷國一, 1940,『滿洲鑛山勞働概況調查報告』, 大連: 南滿洲鐵道株式會社
安藤彦太郎 編, 1965,『滿鐵: 日本帝國主義と中國』, 御茶の水書房
五十嵐惠邦, 2012,『敗戦と戦後のあいだで: 遅れて帰りし者たち』, 筑摩書房

www.kci.go.kr

隅谷三喜男, 1941,「滿洲勞動問題序說(上)」,『昭和制鋼所調査彙報』第二卷 第二號
_____, 1942,「滿洲勞動問題序說(下)」.『昭和制鋼所調査彙報』第二卷 第三號
友清高志, 1992,『鞍山昭和製鋼所: 滿洲製鉄株式会社の興亡』, 德間書店
庾炳富, 2004,『滿鉄撫順炭鉱の労務管理史』, 九州大学出版会
長島伸一, 2016,「社会認識と自立的精神 小宮山量平をめぐる旅」,『長野大学紀要』37巻 3号
川村湊, 2005,「'人間の條件' (1956-1958) 五味川純平 (1916-1995): 語り継がれた植民地と戦争の'記憶'」,『現代思想』33(7)
塚瀨進, 1993,『中國近代東北經濟史研究: 鐵道敷設と中國東北經濟の變化』. 東方書店
坂本梧朗,「五味川純平の文学: 第二節」, 2021. 3. 16. (https://kakuyomu.jp/works/16816452219138989259/episodes/16816452219208938750)
平井廣一, 2003,「書評: 滿鐵勞動史の研究」,『三田學會雜誌』95卷 4號

Bonacich, Edna, 1973, "A Theory of Middleman Minoriti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ume 38
Cumings, Bruce, 1984, "The Origins and Development of the Northeastern Asia Political Economy",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ume 38, Number 1
Han, Suk-jung, 2005, "From Pussan to Fentian: The Borderline Between Korea and Manchukuo in the 1930s", *East Asian History* Volume 30
Jones, F. C., 1949, Manchuria since 1931, Oxford University Press
Min, P. G. and Kolodny, A., 1984, "The middleman minority characteristics of Korean immigrants in the United States", *Korea Journal of Population and Development* Volume 23, Number 2(December)

투고일 : 2021년 03월 29일, 심사완료일 : 2021년 04월 19일, 게재확정일 : 2021년 04월 23일

www.kci.go.kr

■ Abstract ■

From Workers to 'Minority Middleman'?
: Koreans in Manchuria between Representation and Reality

Lee Dongjin (Kynungpook National University)

Part one and two of The Human Condition (人間の條件) by Jumpei Gomikawa is set in Gonhchangling (弓長嶺) Iron Mine of the Showa Steel Mill (昭和製鋼所) in 1943 and features a Japanese supervisor as a protagonist and Chinese "prisoners of war laborers" as major characters. In the novel, a Korean "evil" minority middleman is featured as a secondary figure, and among miners, the Japanese and Korean workers are described as having advantages over Chinese workers. This article contrasted the representation in the novel and statistical and oral data on wanrenkeng (mass grave; a pit of ten thousand corpses) to see if Koreans in Manchuria had changed from laborers to "minority middleman" as in the novel. The oral data did not show any testimony on Koreans having been "minority middleman", but this data had limits as testimony representative of Koreans, since it was written to collect data on wanrenkeng--that is, on Japan's exploitation and slaughter of Chinese mining workers. The statistical data did not confirm the existence of Korean "illegal" middlemen, either, but showed that Korean mining workers had occupied the middle position of Japanese and Chinese mining workers. Therefore, the Manchurian Korean mining workers in the early 1940s and their surrounding world, including the "illegal minority middleman", represented in the novel The Human Condition, are believed to provide a valuable clue to understanding Koreans in Manchuria.

Key words: Manchurian Korean mining workers, minority middleman, 'illegal' minority middleman, the novel *The Human Condition*, statistical data and oral data, representation and reality

www.kci.go.kr